

월간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2001 **1**

월간 우리문화 · 2001년 1월호(통권147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특집 **2001 지역문화의 해**

행사 제3회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 대회

문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신수권 '연두와 파랑' 대표

선진생활문화강연회

'출향 및 유명작가와의 독서생활화 만남'

謹賀新年

2001년 元旦

全國文化院聯合會 任員一同

고 문	권노갑, 최형우, 오영우, 김대성, 이관용, 박영재	
회 장	이수홍	
부 회 장	최병홀(이사·관악문화원장)	송승영(이사·경기도지회장)
	고경재(이사·강원도지회장)	김수진(이사·경상북도지회장)
지 회 장	이영철(서울시지회장)	류해상(이사·대전시지회장)
	차행선(광주시지회장)	박효근(이사·충청북도지회장)
	김현구(이사·충청남도지회장)	김병학(이사·전라북도지회장)
	최상옥(전라남도지회장)	허종성(이사·경상남도지회장)
	양중해(제주도지회장)	
이 사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권용태(강남문화원장)
	이은구(이천문화원장)	최종규(포천문화원장)
	이대근(춘천문화원장)	장수봉(충주문화원장)
	장 영(조치원문화원장)	이인호(익산문화원장)
	오용갑(목포문화원장)	조남식(영광문화원장)
	이원희(경산문화원장)	정지옥(영주문화원장)
	김인한(안동문화원장)	김상수(함양문화원장)
	오필근(사천문화원장)	
감 사	천광인(화성문화원장)	김정순(보성문화원 고문)

2001년을 지방문화원의 해로

새 천 년의 첫해 2000년이 저물고 200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의 문화원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마다 새해 원년이면 희망찬 설계를 해보지만 송구영신하는 마당에서의 감회는 성취의 기쁨 보다 아쉬움이 더 많이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고 참되고 거룩한 삶의 길을 창조하기 위해 새해설계를 하게되고 이렇게해서 한걸음씩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능력이고 곧 문화입니다.

지난해를 회고해볼 때 뉴밀레니엄의 기대가 컸던 만큼의 성과를 성취하지는 못했으나 온국민에게 벅찬 기대를 안겨준 사건도 있었고 우리 문화원도 뭔가 해보겠다는 열성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큰 성과중 하나는 김대중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화해시대를 연 것입니다. 7천만 국민의 숙원이 이루어져 2회에 걸친 감격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남쪽 문화계 대표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북한문화에 대한 화두도 활발해졌습니다.

둘째는 김대중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노벨상(평화상)을 수상하게된 기쁨을 누린 일입니다. 이것도 남북화해시대 개막 못지않은 새천년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하지만 이같은 성취에 자족하기에 앞서 우리는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저속한 생활문화때문에 존경도 신임도 못받고 있다는 현실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회원이 앞장서는 선진생활문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세계화시대에는 자기의 문화를 가지지 못하면 존경받을 수 없기 때문에 21세기 신동국여지승람 「한국의 향토문화자원」발간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이 두가지 사업은 전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1년은 정부가 지정한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지방화가 세계화라는 말처럼 우리는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가꾸어 세계 보편적 문화로 재창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질화된 남북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우리문화의 뿌리인 향토문화 연구사업을 통해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의 문화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문화원가족 여러분!

2001년 새해를 맞아 지역문화의 중추기관인 지방문화원이 더욱 높은 사명감을 갖고 「지역문화의 해」를 명실상부한 「지방문화원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문화의 해와 문화원의 역할

문화 관광부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매우 크다. 관심사가 된 만큼 지역문화란 무엇인가의 논의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 무엇인가라는 담론이 곧 지역문화의 해를 도와주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지면이 개념적 정의를 다시 요약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단지 좀 더 현장적인 간단한 경우를 들어 지향할 바를 설명해 보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뉴욕 브로드웨이는 뮤지컬의 본산지다. 브로드웨이에 뮤지컬 공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브로드웨이 하면 세계인 모두가 뮤지컬을 떠올린다. 이것은 곧 뉴욕이 자신의 지역적 특수성의 문화로 뮤지컬을 성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또 우리는 뉴욕에 가서 뮤지컬을 공연했다는 것을 큰 뉴스로 받아들인다. 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한다면 서울에서 뉴욕에 들어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뮤지컬도 성공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로드웨이에 세계 관광객이 들끓고, 모두들 뮤지컬을 보고자 하지만, 실제로 뉴욕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 중심의 힘은 브로드웨이를 유지시키는 뉴욕의 관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뉴욕으로 간 우리의 뮤지컬은 뉴욕시민의 호응을 얼마나 받



이중한
〈'2001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한국문화복
지협의회장〉

았느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 대답은 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또다른 측면으로 뉴욕 뮤지컬이 서울에 올 수도 있다. 왔다고 해서 서울의 뮤지컬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서울에서도 여전히 뉴욕뮤지컬일 뿐이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이 시점 지역문화의 논점에는 서울이라는 중앙에 모든 문화내용물이 모여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에는 별것이 없다는 양적 손실감

이라는게 있다. 그래서 언뜻, 냉장고나 자동차처럼 지역에도 인위적으로 문화를 배분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분위기라는 것이 나타난다.

지역문화의 해에 가장 먼저 배제해야 할 관점은 이것이다. 똑같은 것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일은 물질문화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신적 창조적 문화에서는 가능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는 상대적 비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히려 비슷 비슷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작업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양적크기로 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문화공간들은 그동안 이 양적크기의 똑같아지기를 추구해온 경향이 있다. 때문에 지역단위 대형 문화공간은 어디서나 객석을 채울 평균적인 주민 조차 부족한 형편이다. 그 어떤 곳에 더불어 사는 주민조차 가지 않는 문화공간에 먼곳에서 오는 타

지역 주민이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소라도 모이는 주민과 그 주민의 관심이 없는 곳에서 문화의 창조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지역문화의 해는 이 출발점에서 스스로 창조하는 작은 단위로 부터의 지역문화를 다시 생각하고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접근이 필요한가를 공동관심사로 만드는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기초적 기반이 생성되지 않는한 지역문화의 발전은 비록 외형적으로 무엇인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수성' 중요... 문화원이 '중심축'

이 점에서 각 지역단위 문화원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문화원이 지역거점에 자생적으로 발전되었다. 문화원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다르다는 것이 세련화되면 이것이 곧 지역의 특수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문화원에는 많은 적든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즉 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는 문화공간의 모습을 갖추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역량은 곧 지역 문화의 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광의의 문화에서 지역적 특수성은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말하게 된다. 공인된 전통문화유산을 가진 지역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유산을 통해서 문화특수성을 내세울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문화원의 입지는 유리하다. 상당수의 문화원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 향토사의 발굴과 애호운동이었다. 몇 지역에서는 문화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문화가 명맥을 이어오게 된 경우까지 있다. 이런 지역

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지역문화의 해에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산업발전과정에서 모든 사물을 양적으로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데 있다. 그래서 문화의 소유에도 평등주의가 척도가 된다. 예술의 창조가 평등주의로 이루어질 수 없듯이 문화예술의 소유 역시 평등주의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더 상식화되어야 할 것 같다. 소설책 한권씩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즉시 그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귀찮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소설책 한권의 가치는 한권이라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즐기고 읽고자 하는 개개인의 감수성 속에 있다. 읽을 의향이 없는 사람에서 소설책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심히 이곳엔 없고 저곳에 있다고 말하는 문화내용물들, 그것이 공연이든 전시회든 간에 그 실체가 똑같이 전국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과연 모두에게 평등한 소유라고 생각되어 질 것인가, 이런 소박한 질문부터 다시 한번 해 보아야 한다.

절실한 것은 주고 받는 내용물이 아니라 그것을 절실한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따라서 나의 문화를 진실로 나의 욕구에 의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욕구는 지금 상당부분이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도로, 똑같은 소비능력 같은 것에 경도돼 있다.

먼길을 가더라도 어느 지역 문화특수성을 보고 오려는 욕구 같은 것이 확대되어야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특수성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원의 축이 되어 내 지역 문화만들기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문**

문화원장은 당기고 지자체장은 밀고 지역문화 꽃 피운다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2001 지역문화의 해'

지금까지 문화원과 지자체에
선 어떻게 문화의 꽃을 피워내고
있을까?

월간 '우리문화'는 2년전부터
'앞서가는 문화원을 찾아서'라는
기획시리즈를 신설하고 각 시·
군·구에서 문화의 텃밭을 일구
는 문화원장과 지자체장을 찾아
나섰다.

지난 99년 4월호의 이길생 포
항문화원장·정장식 포항시장으
로 부터 시작해 2000년 12월호
의 오용갑 목포문화원장·권이
담 목포시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19회에 걸쳐 인터뷰 기사를 실
었다.

이들 문화원장과 지자체장들
은 환결같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자신들의 터전을 '예향의 고을'
이라고 소개하며 "21세기엔 지
역문화가 살아나야한다"고 힘주
어 말했다.

사재 털어가며 '문화 텃밭' 일구

첫회에 소개된 이 원장은 '문
화광'으로 사재를 털어가며 문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정
시장 역시 "삭막한 항구·제철도
시 이미지를 탈피해 생기 넘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
다. 김상수 함양문화원장(2회)은
문화원 업무를 능력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가야금·풍물·민요·

① 포항문화원



이길생 포항문화원장



정장식 포항시장

② 함양문화원



김상수 함양문화원장



정용규 함양군수

③ 해남문화원



황도훈 해남문화원장



민화식 해남군수

④ 전직세무사문화원



故박동규 대전중구문화원장



김성기 대전중구청장

서예등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청렴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정용규 함양군수도 “문화는 생활 그 자체”라며 “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도훈 해남문화원장(3회)은 시범적으로 해남초등학교에 국악아카데미를 개설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민화식 해남군수는 “공룡화석지·땅끝·화원관광단지등을 문화와 접목시켜 해남을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故 박동규 대전중구문화원장(4회)은 “프로 1명보다 아마추어 10명이 더 중요하다”며 문화향수품을 넓히는데 힘썼었다. 그러나 박원장은 1년여후 지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주었다. 당시 김성기 대전중구청장은 “문화는 문화원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며 “문화예술로 중구를 연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⑤ 농가문화원



이지호 예산문화원장



권오창 예산군수

예산농고 동기동창인 이지호 예산문화원장(5회)과 권오창 예산군수는 ‘문화 파트너’로 더 가깝다. 이 원장은 해마다 9월경에 ‘추사선생 전국 서예백일장’을 실시하는데 이어 상경해 세종문화회관등지서 전시회도 가져오고 있다.

‘공부하는 문화원장’ 김병학 김제문화원장(6회)은 손수 마을

⑥ 김제문화원



김병학 김제문화원장



박인희 김제시장

⑦ 옥천문화원



박효근 옥천문화원장



유봉열 옥천군수

⑧ 연세대학교



박형진 원주문화원장



한상철 원주시장

⑨ 건국대학교



권용태 강남문화원장



권문용 강남구청장

⑩ 연세대학교



강명보 광주북구문화원장



김재균 광주북구청장

⑪ 의정부시



조한영 의정부문화원장



김기형 의정부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발굴해 향토사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간 서적만도 15권. 박인희 김제시장은 모악산 금산사와 도작문화유적지인 벽골제 등을 집중 개발해 종교·도작문화 순례지로 문화관광상품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용의 고향' 옥천을 지키는 박효근 문화원장(7회)과 유봉열 군수는 매년 5월에 지용제를 개최오는 한편 조선족과도 문화교류를 통해 '연변지용제'를 지원해 오고 있다. 또 9월엔 중봉충렬제를 개최하고 있다. 박원장은 옥천 마스코트 현상공모에 아기선비 '고드니', 아기낭자 '바르니'로 응모해 당선할 만큼 문화에 폭빠져 있다.

박형진 원주문화원장(8회)은 21억원여를 투입해 문화원사를 신축하는 숙원을 풀었으며 한상철 원주시장은 어린이 천국 '드림원주'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도시형 문화원인 강남문화원 권용태 원장(9회)과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유흥환락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예향'으로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권원장은 초대 원장으로 한강을 테마로 한 문화축제를 비롯 소리와 춤·연극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 중견시인이며 권 구청장 역시 프레치 혼 연주회를 가질 만큼 음악에 조예가 깊은 '문화인'.

㉔ 배천문화원



연만희 동작문화원장



김우중 동작구청장

광주 복구의 강명보 문화원장(10회)은 사라지는 ‘용전들노래’를 되살리는데 혼신을 기울였으며 김재균 구청장 역시 시인이자 화가로 문화원의 파트너로 ‘의향복구’ ‘예향복구’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조한영 의정부문화원장(11회)은 원사를 지어 문화의 거점으로 기능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김기형 의정부시장 역시 “문화의 집 소프트웨어는 문화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강생 2만명 배출...일본과 교류도

㉕ 진천문화원



현문수 연천문화원장



이중익 연천군수

신생문화원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연만희 동작문화원장(12회)은 2년만에 1만명의 수강생을 배출할 만큼 문화대학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김우중 동작구청장도 답사에 참가해 유적지를 설명할 정도로 문화에 관심과 신념이 큰 구청장으로 소문나 있다. 현문수 연천문화원장(13회)과 이중익 연천군수는 전곡리 구석기유적지를 문화명소로 개발해 나갈 계획. 또 권영선 광진문화원장(14회)과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문화복지 사업에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47년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김천문화원(15회)의 김길수 원장은 삼도봉행사를 통해 전라·

㉖ 광진문화원



권영선 광진문화원장



정영섭 광진구청장

㉗ 김천문화원



김길수 김천문화원장



박팔용 김천시장

10기 문화인



정호돈 강릉문화원장



심기섭 강릉시장

11기 문화인



이병태 김해문화원장



송은복 김해시장

12기 문화인



이인호 익산문화원장



조한용 익산시장

13기 문화인



오용갑 목포문화원장



권이담 목포시장

경상·충청간 화합을 다지고 있으며 박팔용 김천시장은 '문화의 거리' '풍물거리' 등과 같은 노천 문화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정호돈 강릉문화원장(16회)과 심기섭 강릉시장은 '문화가 살아숨쉬는 강릉' '미래지향적 전통문화 도시 원주'를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이병태 김해문화원장(17회)은 일본의 히젠조와 마에바루시와 문화교류를 하고 있으며 송은복 김해시장은 '가락문화제' '김해도자기축제' 등을 펼쳐나가고 있다.

재능이 1인 10기 80종목에 이르는 이인호 익산문화원장(18회)은 문화행사 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열정을 보이고 있으며 조한용 익산시장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 민속행사를 지원하는데는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조 시장은 '백제'와 '보석'을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재간 목포문화원의 오용갑 원장은 전통유학식교육기관인 '양현재'를 통해 꿈나무를 키우고 있으며 권이담 목포시장은 바다와 어우러진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들 문화원장 대부분은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경상운영비 확대와 독립문화원사 건립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

흰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날
남몰래 붉게 피어난 동백꽃



2001년 1월호(제15권 1호 통권 147호) 등록 / 라-3627(199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천리안 / cc001fed(Go CCF)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겸 편집인 / 李秀洪 사무총장 / 安辰洙 편집주간 / 柳長洙 인쇄소 / 크리홍보(주) 발행일 / 2001년 1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차례

- | | | |
|--|--------------------------|---|
| 3 ◆ 신년사 | 2001년을 지역문화원의 해로 | 이수홍 |
| 4 ◆ 2001 지역문화의 해 | 지역문화의 해와 문화원의 역할 | 이종한 |
| 6 ◆ 2001 지역문화의 해 | ‘앞서가는 문화원을 찾아서’ 중간결산 | 강민철 |
| 12 ◆ 2001 지역문화의 해 | 지역문화는 세계화의 발판 | 김석만 |
| 14 ◆ 2001 지역문화의 해 | 지역문화 관광상품화의 방향 | 이장호 |
| 28 ◆ 2001 지역문화의 해 | 추진위 사무국 전국문화원연합회내 설치 | 편집부 |
| 29 ◆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 문화원장 · 향토사가 등 2백여명 참가 | 류장수 |
| 32 ◆ 이사람 | “아차산 산신령이 부르나봐요” | 강민철 |
| -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大賞’ 받은 김민수씨 | |  |
| 35 ◆ 한편의 시 | 새 역사를 열면서 | 김민성 |
| 36 ◆ 특별기고 | 이제는 ‘우리 전통 문화’ 밖으로 나갈 때! | 이원복 |
| 40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㉔ | “그들의 그릇에 우리의 문화를 담는다” | 강민철 |
| - 전통문양 집계 · 염서 · 책갈피 만드는 신수권 ‘연두와 파랑’ 대표 | |  |
| 43 ◆ 선진생활문화 강연회 | 서울시지회, 3천명 참석 ‘대성황’ | 류장수 · 강민철 · 지방문화원사무국 |
| 56 ◆ 특별인터뷰 | “이젠 안방에서 ‘대학 졸업장’ 따세요” | 강민철 |
| - 3월 개교 앞둔 서울디지털대학교 조규향 총장 | | |
| 58 ◆ 행사 | ‘동작문화원’ 최우수 기관에 뽑혀 | 현태용 |
| - 제3회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대회 | |  |
| 61 ◆ 이달의 문화인물 | 삼국사기 50권 편찬한 김부식 | 편집부 |
| 62 ◆ 문화광장 | ‘출항 및 유명작가와의 독서생활화 만남’ | 편집부 |
| 65 ◆ 여행수첩 | 역사 상흔 깊은 창녕 문화유적지 탐방 | 안정자 |
| 68 ◆ 세시풍속 | 납일과 세시풍속 | 박후식 |
| 70 ◆ 알림 | ‘향토사 CD롬’ 무료로 드립니다 | 편집부 |
| 73 ◆ 문화원 소식 | | 편집부 |
| 79 ◆ 신간안내 | | 편집부 |



지역문화는 세계화의 발판

문어둔 기억의 발굴로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높이자

올해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지역문화의 해이다. 지난 10여년간 해마다 특정 장르의 예술을 지정해 왔는데 지난해는 '새로운 예술의 해'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하는 해이고 200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둔 시점 이어서 이번의 지역문화의 해 지정은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역문화의 개념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시켜서 파악하고 있다. 지역문화를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 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기 위한 활동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자발성, 창의성, 책임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발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몹시 중요하다.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지역주민의 역할을 강조함은 마땅하며 지역주민의 삶과 역사적 기억이 담겨 있지 않은 지역문화는 존재할 수 없다. 지역문화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적 특성, 즉 지역성과 사회적·역사적 연대성, 즉 공동체성은 바로 지역문화의 발전의 핵심이자 동시에 세계화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 개발이 세계화에 부응하며



김석만
〈연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라는 말은 설득력을 지닌다. 이럴 때 특색 있는 지역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남들보다 색다르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 지역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 지역 고유의 것을 말함일까. 그러나 아무리 그 지역 고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기억과 자긍심이 담겨있지 않다면 의미는 잃어버릴 것이다. 잠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방문의 경우를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에게는 안동

하회마을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곳으로 유명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안동 하회마을은 이미 여왕이 방문지로 왕림할 만큼 유명해 있었다. 문제는 여왕이 방문하였을 때 내은 생일잔치상에 있다. 그 생일잔치상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누군가 여왕이 먹고 간 생일잔치 상을 문화 상품화하려는 의도가 누군가의 머리 속에 있었을지 몰라도 그 생일잔치상은 차라리 건진국수 한 그릇 보다는 못한 잔치상이 되고 말았다.

그 생일 잔치상은 안동 하회마을 사람들의 보편적 삶의 기억과 자긍심이 담겨 있는 밥상이 아니었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은 그 문화를 생산해내고 삶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기억과 자긍심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여왕은 차려준 생일잔치상은 이미 의전절차의 약속에 따라 입도 대지 않았다 한다.

**지역문화란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
들 스스로가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기 위한 활동의 소산물”**

그러나 충효당의 사랑채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었다. 생일잔치상에서 안동사람들의 삶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효당의 사랑채에서는 삶의 체취를 느꼈기 때문일까.

요즈음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의 마스코트, 캐릭터, 또는 상징이나 표상 등을 지정하거나 제정하고 있다. 이 캐릭터들도 지역 주민의 삶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한낱 디자인에 불과할 뿐 생명력을 갖기 힘들다. 서울의 캐릭터는 ‘왕범이’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김포의 캐릭터는 삼살개와 풍산개를 지칭하는 ‘살이와 산이’이다. 삼살개와 풍산개는 김포와 무관하다. 단지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김포에서 풍산이 제법 가까운 고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왕범이’와 ‘살이와 산이’가 서울시민과 김포시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 실마리를 찾아낼 도리가 없다. 전국에 널려 있는 그 캐릭터들을 한번 한 자리에 모여 보면 어떨까. 거기에서 우리 지역문화의 특성들이 나타나 한국의 고유성을 나타낸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셀 수 없이 많은 캐릭터들이 지역주민의 삶과 정서적 기억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지극히 관념적인 차원에서 제정된 듯 보인다.

사실 우리는 새마을 운동이다, 도시화다, 개발이다, 하며 이미 공동체적 지역문화의 유산을 상당부분 해체해버린지 오래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더니 세계화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특색 있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사실 남아있는 것이라곤 기억뿐 일지도 모른다. 세시풍속과 공동체적 의식 절차가

다 사라졌는데 기억만을 가지고 사라진 풍속과 의식절차를 다시 살려내는 일은 단기간에 될 일이 아니다. 아니 명분만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비록 옛 것들은 사라졌으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기억들을 추려 모으고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

도시나 지역이나 생활환경은 이미 고유한 옛 모습을 간직하지 못한 채 전국이 획일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찾는다면 역사적 환경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간직하고 있는 삶의 기억들이다. 어떤 기억들은 거의 망각의 창고에 묻힐 순간에 처해 있을 것이다.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무수한 기억들이 망각으로 사라져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 가정을 살펴보다도 선대의 기억이 후대에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은 바로 그 묻어둔 기억에서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비록 떠올리기에 거북한 기억일 망정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 남겨 주는 게 옳다.

세계화는 서로 다른 문화끼리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경쟁을 한다고 해도 서로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지 않은 채 어떻게 제대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인가. 지역문화의 해에는 지역마다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 이를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추진해 보자. 

지역문화 관광상품화의 방향

머릿말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면서 가장 팔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언인가를 해야한다는 의식의 변화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식변화는 결과적으로 지자체 마다 경쟁적으로 축제·박람회·전시회를 풍년지게 만들었으나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매스컴을 통해 나온 적이 없다.

한국의 문화는 원래 서양 어떤 국가나 지역 보다 훨씬 역사성이나 지역연계성이 높다고 하겠다.

대체로 우리 문화는 불교문화, 유교문화, 전적지문화, 농경문화, 토속신앙문화, 한글문화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형문화는 석조물, 목조건물, 불상, 릉, 정자 등으로 구분된다. 무형문화는 인간생활의 규범가치인 인심, 예절, 풍속 등과 인간생활의 문화가치인 가면극·인형극과 전통음악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산업사회화과정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선진제국 중 구주지역은 유형문화가 그 존속성과 규모 면에서 훨씬 웅장하고 그 가치가 높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이들 구주지역 국가군이 갖지 못한 무형문화면에서는 그 뿌리와 독창성 면에서 훨씬 앞선다고 하겠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차별화된 지역문화를 관광상품화 하려 했지만



이장훈
〈경기대 관광학부 교수·
한국관광정책학회장〉

대부분 실패에 그친 결과 예산과 인력의 낭비만 가져왔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또 어떠한 형태의 낭비적이고 걸치레 형의 행사가 나올지 걱정이 앞선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자체의 지역문화가 관광상품화에 실패한 원인을 구명하고 향후 바람직한 지역문화의 관광상품화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지역문화 관광상품화의 실패 요인

가. 전문성 부족

관광상품은 그 성격상 수요에 따라 생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상품은 공급성이 크다. 관광상품의 공급성의 결정은 철저한 상품성의 가치와 그 상품이 관광객에게 불러 일으킬 이미지와 지역연계성 및 독특한 문화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관광상품의 기획·생산·판매는 일시적으로 또는 급조된 지자체의 인력으로는 감당기 어려운 전문분야이며 한국의 지역문화관광상품화의 실패는 전문성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나. 연계 관광상품 기획·연출력의 부족

똑 같은 지역문화를 상품화 한다하더라도 상품기

획능력과 연출력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 대부분의 관광상품이 하나만 가지고 성공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지역관광문화의 상품화가 연계프로그램개발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선지역 카지노가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카지노 이외의 연계 관광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다. 지역관광정보생산 · 홍보 · 판매의 소프트웨어 부족

경주 문화엑스포와 제주 섬 문화 축제라는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상품이 성공하지 못한 데에는 지역과 역사 연계 및 관광정보생산과 홍보 부족이 그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본 오이마 현의 유후인 마을의 성공은 폐광지역을 때론 축제 하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와 탄광체험프로그램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무형문화관광상품화의 실패와 체험상품개발의 빈곤

영국 애딘버러 지역에서는 가장 각광 받는 관광상품이 귀신체험이다. 안동 하회마을은 마을 그 자체의 문화성이 뛰어 나지만 이 마을의 하회 별산과 줄불놀이가 함께 할 때에 경쟁력이 있게 된다. 안동하회마을은 영국 여왕의 방문과급효과로 방문객이 증가되었다고 하니 한참 잘 못된 일이다. 안동 하회마을은 일부 계층이 방문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을 영국 여왕이 방문하였다고 법쩍 떨고 찾고 있어 자원보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뒤늦게 우리 문화를 찾는 꼴이 되었다. 이 얼마나 잘못 된 일인가.

마. 급조한 지역문화의 상품화와 대표문화제의 관광상품화 실패

지역문화가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자리잡는 데에 필수 불가결의 요소는 치밀한 사전평가와 준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박람회나 축제 및 이벤트가 급하게 만들어지다보니 기획팀이 마케팅도 하고 연출도 하는 소위 '복치고 장구치는 식'의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는 신라 문화제나 백제 문화제 역시 비디오 테이프 하나 상품화 못한 실정이고 보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를 어디서 찾아야 할 지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역문화 관광상품화의 방향

가. 지역특성화 문화 · 관광연계 프로그램 개발

청도 소싸움축제가 성공하려면 소싸움 + 청도 운문사 투어 프로그램 + 사리암 수련회 참가프로그램 + 야간 불과 빛과 놀이축제의 개발과 민물고기 낚시 프로그램 등의 연계 프로그램이 창출되어야 한다.

백제 문화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백제문화제 + 상징형 캐릭터개발 + 무녕왕릉 체험 프로그램 + 청동대향로 축제 + 백제문화 · 역사 탐방 수련학교 프로그램 + 야간 백제촌 체험 연극 · 놀이 · 투어 프로그램 + 쇼핑상품으로서 경쟁력 있는 백제문화 상징 토산품개발이 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상의 청도 소싸움 축제와 백제 문화제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상징화 할 수 있는 지역문화는 도처에 널려 있으니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고 하여야 한다. 

한국을 40회나 방문한 일본 관광연구학회 前田勇 회장은 ‘일본은 있는 자원의 90%를 상품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있는 자원의 10%도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아직은 기회가 분명히 있는 셈이다.

나. 지역문화 · 관광통역 안내전문가 양성교육기관 설립과 문화관광직업제도의 도입

비원을 방문한 구라과 여성관광객은 비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못미쳐 실망하고 돌아갔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화관광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주의 문화유물 유적을 제대로 설명할 관광전문통역안내원이 없다.

문화와 관광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이므로 전통문화를 제대로 홍보할 전문요원양성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문화관광직업제도를 도입, 지자체에서 이들을 고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문화재관리전문형 특수 대학도 설립하여 인력양성을 하여야 한다.

다. 지역고유문화발전과 상품화를 위한 공연장 확보와 공연자에 대한 특례대우 제도화

양주에서는 365일 양주 별산대놀이를 관람할 수 있어야 하고 하회마을에서는 하회별신굿을 1년 동안 볼 수 있어야 한다. 관객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공연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통문화 공연이 365일 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공연시설 확보와 공연자의 생활보조예산편성이 되도록 여론을 조성하여야 한다.

라. 지역문화의 관광상품화 전문여행사의 양성

특수 목적의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는 대부분 내국인의 해외 특수상품을 취급하지만 국내의 지역문화와 축제를 특화하여 상품화한 여행기업은 더물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행사가 자본투자를 실시하여 지역문화를 상품화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지금부터 지자체와 지역문화원, 지역상공인과 지역학교와 사회단체와 여행기업과의 협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계적 ·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집행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 등의 일들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말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맺는말

문화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화의 상품화는 자칫하면 고유문화의 파괴와 문화충격, 문화저항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흔히 5천년 역사와 문화라고 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그랜드 캐닝에는 산신령이 없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내에는 사찰이 없으며 물귀신과 삼신할머니, 척신과 우마신도 없다. 여름철 드라마보다 한국의 처녀귀신이 더욱더 경쟁력이 있다.

도처에 널려있는 무형문화를 발굴하여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교육과 교화 그리고 세계인에게 관광상품으로 내놓아 외화도 벌고 문화의 우수성도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자.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화를 추구하는 '지역문화의 해' 로...



송승영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지난 해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아끼고 도움을 주었던 '새로운 예술의 해'의 활동을 접어두고, 이제 '지역 문화의 해'를 펼치기 위해 지방문화원의 문화가족이 모두 심기일전해야 할 2001년도가 밝아왔다.

어김없이 맞이하는 새해 아침이지만, '지역문화의 해'인 올해의 의미가 문화가족들에게 남다르게 느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래, 문화는 시대상황에 따라 완급(緩急)을 조절해 가며 변화해 간다. 또한 문화는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 가치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전환을 모색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현재도 적극적인 문화운동가들에 의해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창조적으로 활성화되거나 관심밖으로 밀려 일부는 소멸되기도 해 문화가 마치 생물(生物)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러한 문화의 속성과 접변(接變)은 올해가 '지역 문화의 해'로 설정된 만큼 지역문화를 풍요롭게 바뀌 나가야 할 책무(責務)가 지방문화원 중심의 문화가족들에게 이미 맡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역문화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전환(轉換)을 모색해 나갈 것인가?

경제 침체기를 거치면서도 지방문화원이 곳곳하게 정신문화, 순수문화, 고유문화를 오로지 지켜왔듯이 지역사회에 공존하는 현대문화, 대중문화, 예술문화와의 조화(調和)와 상생(相生)을 서로 추구해 문화가치의 다양성이 한층 더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상이한 문화요소들이 포용과 관용의 자세를 견지해 나감으로써 문화주체 구성원간의 갈등과 혼란이 사라지면, 지역마다 차별화된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는 '지역 문화의 해'의 궁극적인 목적달성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문화토대 위에서 문화활동도 지역주민의 주인이 되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소수가 지배하는 문화를 찾아가서 보고 느끼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취미생활화 하는 문화활동으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문화를 지양하고 문화주체들이 상호간 정서를 교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비로소 '지역 문화의 해'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역량 강화가 이룩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문**

문화복지 여건 조성 and 구현의 계기로



최병흠
〈전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

꿈과 희망으로 우리 국민의 기대를 부풀게 했던 大望의 21세기 2천년 첫해는 지난 시대 못지 않은 시련과 고통의 한해였습니다. 보다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는 큰 아픔이 뒤따른다는 말도 있지만 새천년에 대한 기대가 컸던만큼 失意와 좌절도 큰 한해였다고 회고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성을 조명해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온갖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강인한 저력을 발휘한 세계 속의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성은 우리 사회에 일시적 암울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희망을 잃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연한 용기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촉매(觸媒) 역할을 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해는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지역문화는 지방문화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해는 우리 문화원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 지역문화를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문화로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추기관입니다. 문화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서 세계 200여 국가 국민의 행복지수조사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는 방글라데시 국민이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긴다면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 조건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확고한 정신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겸허히 수렴하는 의미에서 새해에도 국민의 교양과 정서함양은 물론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욱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동안 미흡했던 각종 문화사업이나 행사 등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바쁜 일상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전국의 문화원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문화원 육성 · 지역문화 활성화 기대



김병학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지회장〉

새 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은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라고 한다. 지방시대와 함께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모든 문화적 자산은 지방에 분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문화의 중앙 집중적인 현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자립을 통한 지방문화 발전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의 지방분권화가 시급하다. 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에 집중된 문화시설 · 문화행사 · 문화정보를 지방에 분산해야 하고,

둘째, 문화관련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은 물론 이의 집행에 소요되는 지방재원도 함께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즉 중앙집권적인 획일화된 문화정책을 탈피하고, 지방에도 문화공간을 늘려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문화는 지역인들의 생활터전과 문화적 토양이 합치될 때 문화적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천년은 모든 국민이 선진문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수하며 질 높은 삶을 영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아울러 열악한 각 지역소재 문화원(文化院)을 명실공히 지역문화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육성 ·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우리 문화원들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민족문화의 근간이요 뿌리인 지역문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문화는 곧 우리 문화의 기초적 토대가 되며, 이 토대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는 우리 문화의 뿌리다. 뿌리를 튼튼히 가꾸지 않고 아름다운 꽃과 탐스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문화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문화를 잘 가꾸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수입을 증대하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을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현실화가 가장 절실하다. ㉞

문화원은 지역문화사업 대행기관



김현구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문 화원은 정부의 지방문화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의 우리문화는 정치와 경제의 뒷전으로 밀려 삶의 지향상에 기여하지 못했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에 미약했었습니다.

일제의 문화말살정책 6.25 전쟁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갈등과 외래문화의 홍수속에서 명맥을 유지하여 이만큼 성장을 이룬것만봐도 50년 가까이 묵묵히 일해 온 우리 문화원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가 뒤섞이면서 국적없는 문화가 범람하고 요즘 우리가 살고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부분 미국과 일본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중문화가 우리네 안방까지 침입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휘젓고 있음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가 아무리 발달했다 하지만 그 문화의 뿌리는 분명 우리 문화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것으로 동

화·감화시켜가는 문화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 남북간의 교류로하여 보여지는 남북한 주민의식의 골이 너무나 깊게 파여져 있음을 봅니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질화된 의식을 동질화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고유문화 활동의 교류확대를 위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개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등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선진생활문화 활동과 이러한 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는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중 문화예산이 내년에는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반가운 일이며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증액됐지만 중앙에 집중되고 타부문에 많이 쓰여지며 지방의 문화공간시설이나 지역문화활동 지원에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당국은 지방문화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예산의 적정과 효율성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방문화원은 종래의 사회단체나 관변단체가 아니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법정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기관입니다. 따라서 문화원은 정부의 지방문화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임을 당국은 인식하고 지방문화창달을 위하여 지방문화제 육성에 과감한 시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

예술문화행사 민간이 주도해야



양중해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장〉

정부에서는 금년인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선포하였다. 새로 시작되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예언하여 왔거니와, 문화의 세기 벽두가 되는 이 2001년을 우리 정부에서는 ‘지역문화의 해’로 정한 것이니, 이는 21세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시의적절한 문화적 조치이며, 문화의 일선에 종사하는 우리들로서는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2001년인 이 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내세웠다면, 지역문화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막연히 ‘지역문화’라고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어느 특정지역의 문화, 곧 어느 한 지역에서 창조되고 향유되어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 현상의 총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특정지역의 문화이면서도 타지역의 문화와 비교된 차별성 위에서 성립되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 곧 그 지역의 향토문화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에 대한 발굴·보존·창조·개발 등은 물론, 주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편의제공 등 일체의 문화운동의 담당자는 전국 각 지역에 자리매김 하고 있는 문화원의 구실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지역문화의 해’란 구호가 일대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지고, 그 실효를 거두려고 할 때, 우리가 정부 당국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지방문화원 스스로 담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먼저, 정부가 올 한 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선포하였다면, 이 선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 따라져야 한다는 것이며, 정부의 예산 중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란 처음부터 충분하지 못한데다, 그나마 그런 예산도 행정기관에서 거의 집행해 버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 오고 있다. 예술행사 문화행사 같은 것은 관에서 하지 말고 문화원과 같은 민간기관으로 과감히 맡겨 주었으면 한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문화원의 구실이다.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도 없이, 2001년이 ‘지역문화의 해’로 선포되었다면, 이 지역문화 중흥의 일차 담당자는 전국 각 지역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200여 개의 지역문화원이며, 20만이 넘는 문화원 가족들이다. 우리들은 올 한 해가 문자 그대로 지역문화 중흥을 위한 획기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로 하자. **문**

문화의식 전환계기 되었으면....



류해상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장〉

지난 10년동안 매년 각 분야별로 정부가 '문화의 해'를 지정(91년부터 연극·영화·춤·책·미술·문학·문화유산·사진·영상·건축문화·새로운 예술), 불씨를 지펴줌으로서 문화창달의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되었다. 지역문화의 해 지정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우리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스스로 아끼고 가꾸어 지역마다 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향으로 만들었으면 싶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우리만이 갖는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한다면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족문화, 향토문화의 구심체인 지방문화원의 활성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단체로 지방문화원과 예총이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의 문화사랑방 구실을 하면서 사회교육 차원의 문화교양강좌, 학술회, 문화행사 등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면서 전통문화와 향토문화를 가꾸고 있다. 또 주민들의 문화향수 충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산실이다.

기초단체 마다 자리잡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이러한 문화활동이 활성화된다면 물질문명의 피해로 오늘날 겪고 있는 위기상황도 인간적인 문화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문화원의 바탕 여건이 취약하다보니 문화원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문화원이 활발하게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문화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도 형편이 취약하다보니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이같은 여건을 감안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된 2001년에는 정부의 문화예산 확대지원이 획기적으로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전남 순천의 경우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만들어 10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시의 일반회계 예산액의 0.5%를 출연하고 있다고 들었다. 시장이 앞장서 교수와 전문 예술인 등으로 문화도시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진흥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지방문화를 적극 창달하고 있다는 신준식 순천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크게 고무된 적이 있다.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신준식 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나와 새로운 기풍을 일으켜 주었으면 좋겠다. 

조상들의 고매한 정신 되살려야



金東淳
인천문화원장

요즈음 우리 주변을 보면 정의롭지 못한 시국을 한탄하는 소리
가 여기 저기서 들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더워도 악(惡)한 나무 그늘아래서는 쉬지 않을(熱不息惡木陰)” 만큼 우리조상들은 고매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옛 이야기를
생각 해보게 된다.

이 한탄 속에는 세대중심의 문화구조가 형성되면서 심각한 도덕 파
괴 현상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느껴지는데 아마도 이런 상황은 앞으
로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금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정하고 지역 문화창달에 역점을 두
려는 계획은 아주 시의에 적절했다.

전국문화원 창설후 반세기이래 가장 역사적 쾌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문화원은 새해 문화사업이 가야할 새로운 방향은 어디이고 중점을 둘 과제는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검토
해야될 듯 하다.

사막이 삭막하지만 앓은 것은 그 안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듯, 짜증나고 각박한 주민의 정서 속에 윤
기를 돌게 하며 여유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문화의 힘이며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문화원들
의 지방문화 정착(軟着)을 위한 새해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 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인천은 오는 3월 인천국제공항 개통으로 1883년 개항의 역사에 이어 두번째 도약을 시도하는 무거운
힘을 지니고 있다. 국제인 다운 시민의 매너를 숙성(熟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
발, 각종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과 사회교육을 통해 시민의 관심이 이 쪽으로 이어 지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작년의 총체적 문화사업을 일별 하면 어느 해 보다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된 결과에 힘입어 금년은
영어 반을 신설 14개 반 450명을 수용하는 사업 확대와 문화가족을 좀더 가깝게 하는데 주력, 인천문화원
창립 반세기 동안 주부백일장 등 여러 면에서 관련을 맺고 스쳐간 사람, 그리고 3,500여명의 문화 학업을
이수하신 분들, 청소년 사회교육장을 거쳐간 사람들과 교류·유대 하는 방안으로 통신망을 형성, 문화가족
의 생활정서를 곁게 하는 사업에도 비중을 두고자 한다.

2001년은 좀더 정의로운 국정 운영 속에 정치, 경제의 안정에다 문화적 사회력을 높이는 해가 되기를 기
대해보자. 

‘역사사랑’ 이 ‘문화사랑’ 의 길



박만택
〈부산강서문화원장〉

우리가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고 교양과 윤리적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근면, 정직하고 겸손, 봉사하는 공동사회를 이룩하여 전체를 위한 개인, 개인을 위한 전체로 통한 된 국민을 형성하도록 하는 노력과 생활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가 선조들의 전통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원칙에 따라 과거를 현재에 살리고 그 통일된 생명을 미래에 전승시키는 작업을 뜻한다.

세계화 시대에 애국심이란 한 나라의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할 것이 못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아무리 훌륭한 도덕이라도 이기주의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애국을 방지하여 자기자신의 영달만을 꾀하는 자는 비판 받아야 하

겠지만 애국심 자체를 경시할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 전승한다는 것은 애국의 토양을 가꾸는 근본 조건이다. 우리 역사에 대하여는 다른 나라의 풍물을 구경하며 그 유물들을 감상할 때와 같은 객관적인 태도만을 견지할 수 없게 된다.

거기에는 역사적 실체와 지식 이상의 사랑이 앞서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문화재 보호에 소홀하다는 평을 듣는다.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수집정리, 분석함으로써 끝나는 기록이 아니다.

역사가 참으로 산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줄거리가 서 있어야 한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사실의 주인공인 선인들의 인간생명, 그 정신적 주체성이 면면히 이어 흘러야 한다. 그러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곧 애국이다.

우리가 과거의 문화 형태를 문자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더욱 근본적인 개혁을 위하여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간 선조들에 대한 사랑의 단절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문화 전승이란 것도 단순한데서 복잡한데로 불완전한데서 좀 더 완전한데로 나아가며 상승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단절이라기 보다는 성장일 것이다.

선조들의 위치에 우리 자신들을 대입시켜 그 실상을 파악한 만큼 진실해 본적도 거의 없었다.

과거가 영광이든 치욕이든간에 우리가 거기에 사랑으로 동참하는 때에만 우리에게 산 역사, 완전한 역사가 될 것이다. **문**

지역문화발전위한 기틀 다져야



차행선

〈전국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 지회장〉

새해에 우리는 '지역문화의 해'를 맞습니다. 지역문화는 변방의 문화가 아니라 중심의 문화입니다. 문화 창조력의 경쟁시대를 맞는 21세기를 지역문화의 창달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50여 년간의 중앙집권적 정치, 경제, 행정으로 인해 지방의 발전과 분권화, 그리고 특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창조는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역의 문화 시설 문화 공간의 확보가 미흡하여 광주지역만 보더라도 각 문화원의 문화 행사 공간이 비좁고, 지방 행정 기관에서는 문화원의 기본시설과 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은 행정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문화인력의 양성에 획기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배출되어 지방문화의 창달에 헌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국립박물관에 이런 교육기관을 부설하여 문화유적의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국립극장에도 교육기관을 부설하여 일정한 자격을 주어 각 지역에 배치되도록 해야 하며, 문인협회·국립교향악단·각 대학에도 이러한 부설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자가 적정 보수를 받으며 평생을 몸 바칠 수 있도록 '문화일꾼'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재정의 확보 책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보완해 가기 위해, 또한 '문화일꾼'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적정 보수를 주기 위해 예산 내지 기금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문화의 창달은 곧 삶의 질의 향상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문화활동에 쓰는 예산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획기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역이 곧 세계로 통하는 문화인자의 발굴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역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



허종성
〈전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장〉

희망의 새천년 원년을 마무리 하면서 신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에서 문화의 비중이 급상승하게 될 것임으로 세계화의 물결속에 우뚝서서 당당히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일컫듯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문화에서 빛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향기를 내는지에 따라 국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우리문화의 근간이자 원동력인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민족정서와 얼을 담아내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토대로 지방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모르고서는 민족과 세계의 문화의 역사를 논할 수 없다’고 일갈한 마산이 낳은 인물 노산 이은상 선생은 일찍이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맡을 당시 문화원가족들을 그 지역의 “동산지기”로 표현하면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정했습니다. 다시말해 ‘지역문화의 해’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가꾸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화가족들이 다시한번 내고장의 “문화 지킴이” 즉 “동산지기”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 새해에는 더욱 알차게 내고향 연혁찾기, 출향작가 귀향사업이 전승되어 오는 마을 축제와 세시풍속을 찾아 고증하고 재현해 보는데 마을 주민이 단합하고 지역의 볼거리로 승화시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내는데 적극 나서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국의 문화가족 여러분! 민족통일의 궁극적 목표가 문화통합이라면 이는 어느 한쪽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가 세계적 보편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어우러짐을 뜻합니다. 새해엔 가장 지역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라는 생각을 갖고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의 지역적 격차 해소해야



권용태
강남문화원장 · 시인

정부는 올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하여 중앙과 지역간 문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풀뿌리 문화운동을 되살려내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의 지역문화가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파행적으로 운행되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전통문화의 계승이나 새로운 사회환경에 걸맞게 지역사회를 더욱 문화적인 고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지역민의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문학을 비롯한 연극, 영화, 춤, 국악, 미술, 사진영상, 건축 등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문화예술의 한 장르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책을 펴왔다. 그러나 약 10억이라고 하는 예산과 1년이라는 한정된 짧은 시간으로는 문화예술의 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진흥시킬 수는 없다는 교훈도 얻었다. 일회성 운동이 낳은 거품을 없

애고 내실있는 문화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의 '지역문화의 해'는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문화투자자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는 우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토문화의 전승계발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지역문화환경의 개선으로 문화격차를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긍지 선양으로 주민화합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문화시책의 획일적 전개를 지양하고 지역특유의 문화적인 전통을 부각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주민주도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적 지원을 후견적·조정적인 지원에 국한하는 것, 주민의 자율적 활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의 개발과 지역문화의 기층을 진작시키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문화향수권을 끌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문화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정의 지방분권화가 사실상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이는 문화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문화활동이 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라 중앙집중에서 지방의 문화화에 기초를 두는 문화복지적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회귀해 마지 않는 소이 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역문화의 해'를 계기로 지역문화의 활성화 시책을 펴면서 문화예술의 대중화, 지방문화시설의 확충과 소프트웨어 개발, 향토사회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하겠다.

그래야만 지역적 소외감에서 벗어나 자긍심을 갖게 되고 지역민들의 문화적인 소외의식의 해소에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상은 원고 도착순〉

2001 지역문화의 해 始動

추진위 사무국 전국문화원연합회내 설치

편집부

문화 관공부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이중한 한국문화복지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한 26명의 추진위원을 임명하였다.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사무국을 전국문화원연합회내 설치하고 이종인 추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정, 사무국을 지휘토록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정부의 지역문화의 해 지정은 중앙에 집중되어 온 문화향수 기회를 지방으로 확대하여 지역간 문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국민이 골고루 나누는 문화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람 · 삶터 · 어울림」을 주제로 정한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는 「21세기 출발, 지역문화로부터」, 「함께 창조하는 지역문화, 함께 누리는 공동체 문화」를 슬로건으로 하여 ①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의식 제고 ② 문화예술프로그램 창출 활성화 ③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④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재창조 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및 2002년 「월드컵대회」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실시 여건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지역문화의 해 사업은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방이어서 문화원들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

위원장 : 이중한(한국문화복지협의회회장)
위원 : 강신표(지역사회학회회장)

강준혁(추계예술대 예술경영대학원장)
김명곤(국립중앙극장장)
김명자(안동대 민속학과 교수)
김문무(경기도 문예회관장)
김상수(2000 새로운 예술의 해 문학분과 위원장)
김석만(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김중현(한국예총사무총장)
김중희(한국관광공사국내친홍본부장)
박인배(과천세계마당극큰잔치총감독)
백지숙(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 경영학과 출강)
신찬균(세계일보주필)
안진수(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엄용섭(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
안이영노(문화기획집단<CHANG21>활동대표)
이재현(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정책기획위부위원장)
유홍준(문화재전문위원)
이원태(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이종인(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정강환(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 연구소장)
정중현(조선일보논설위원)
최성자(한국일보논설위원)
노태섭(문화부예술국장:당연직)
이진배(문화예술진흥원사무총장:당연직)

◆ 추진위원회 사무국

• 상임위원 : 이종인 • 제1팀장 : 홍성일
• 제2팀장 : 김두진 • 직원 : 송순희

문화원장·향토사가 등 2백여명 참가 대상·최우수상 논문 발표도

류장수 편집주간

전국 문화원연합회 주최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가 지난 12월 7일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김정옥 문예진

홍원장,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 노태섭 문화부예술품국장 등 내외귀빈과 전국 지방문화원가족, 재야향토사학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향토문화연구발표회는 안진수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국민의례에 이어 임동권 심사위원장의 심사총평, 수상자 발표, 시상 순으로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서울광진문화원 향토사분과위원장 김민수씨의 「아차산에서의 고대사의 제문제」가, 논문부문 최우수상은 동대문문화원 김영섭원장의 「한양의 용문화 오방토룡제에 대한 연구」, 사료부문 최우수상은 부산 낙동문화원 백이성원장의 「조선시대 동래부 사천면 고문서」가 차지했다. (기타 수상자 명단은 12월호 75면 참조)

임동권 심사위원장은 심사총평에서 『많은분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지를 갖고 땀 흘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여 고맙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앞으로 향토문화연구에 응모



△ 수상자 일동 기념사진

하고 싶은 분을 위해 권고하고 싶은 것은 첫째, 기초자료를 많이 섭렵하고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쓸것, 둘째 가급적 고향의 내용을 주제로 할것, 셋째 서론이나 예문보다 논문의 주내용이 반이상 되도록 작성할것 등」이라고 말했다.

임위원장은 『올해도 50편의 논문이 들어 왔는데 모두가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지만 상이 제한돼 있어 모두에게 상을 줄 수 없는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이수홍회장은 인사물을 통하여 『우리문화의 뿌리인 향토문화가 잊혀지고 망실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재야향토사학자들이 댓가도 없이 맨발로 현장을 누비며 발굴하고 연구하는 노고를 높이 사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우수논문을 뽑아 시상해 왔다. 올해까지 110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큰 공지를 느끼게 하고 있다. 문호가 좁고 상금이 적어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부터 장관상을 국무총리상으로 격상하였는데 내년에는 대통령상으로 격상하고 상금 예산도 진흥원에서 증액하

여 주었으면 좋겠다. 온 국민이 애정을 가지고 우리 향토문화 연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도 세 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 끝에 수상작을 정했는데 오늘 영광의 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참석을 약속했던 김한길 문화부장관은 정기국회 참석때문에 불참하고 노태섭 예술국장이 장관 격려사를 대신 읽었다. 김한길 장관은 격려사에서 『문화의 세기를 맞아 우리문화의 근간이자 원동력인 향토문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의 민족정서와 얼을 담아내는 향토문화야말로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독창적인 문화로 발돋움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 문화부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특히 내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정하고 독창적인 지역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정옥 문예진흥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에



△ 대상을 수상 후 악수를 나누는 김민수씨와 노태섭 예술국장(맨아래)

IMF위기가 온 것은 경제에서가 아니라 문화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문화적 바탕이 없어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때일수록 문화를 더욱 중시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했는데 이 기회에 향토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기대한다. 다양성, 가변성이 많은 문화를 경제논리로 풀려는 생각을 버리고 먼 앞날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은 『향토문화가 갖는 의미가 중요함에도 우리는 그동안 근대화, 상업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귀중한 문화유산을 소홀히 하였다. 이같은 환경속에서도 향토문화 발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향토사학자들에게 감사한다』고 축하하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념촬영을 한 후 곧 발표회로 들어갔다. 발표회는 김선풍 중앙대 민속학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첫 발표에 나선 김민수씨는 『아차산은 삼국시대 군사적 요충지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던 곳이다. 몇해 전, 필자는 신라의 백제 정벌은 한강 하류에서 출발한 수군 작전이라는 논

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 당시의 신라와 백제의 첫 전투지였던 황산벌은 우리 나라의 큰 강변 곳곳에 있다. 지금의 고수부지이며, 우리말로는 둔치이다. 그 이전 신라군이 비켜간 탄현도 현재 한강하구의 SBS탄현 촬영소가 있는 곳으로 옛 지명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역을 망라한 경기도 고양시의 옛 이름은 개백현(皆伯縣)이다』고 하였다.

또한 논문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영섭 원장은 『한양의 용문화 오방토룡제는 기우제의 하나였는데 서울의 동서남북 사방에 그 제단이 있었고 중앙에 해당되는 종로에서 제를 지낼 때는 단을 설치했다가 끝난후 철거하였다. 우리의 용문화는 중국과 함께 융성하였으나 일본인들이 한국의 문화말살책으로 점차 잊혀지고 말았는데 특히 오방토룡제를 복원하면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료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백이성 원장은 『동래부 사천면(지금의 부산 사상) 고문서는 조선시대 동래부와 사천면 상단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해주는 소중한 자료』라면서 이 지역의 향약과 동계에 대한 고문서의 발굴경위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시간에 쫓겨 대상과 최우수상 두편에 대한 논문이 간략하게 발표되고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첫번째 질문에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중앙회 교

육위원 최돈세씨는 대상 수상자 김민수씨에게 『김민수선생 수상소감 끝부분에 평강공주가 급박한 전쟁터에 와서 전사한 온달장군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했는데 전사한 곳이 명기되지 않았다. 온달산성이 있는 충북 단양의 문화원과 공동으로 온달장군 전사지를 고증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김민수씨는 『온달장군 유적지는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평강공주가 그의 시신을 수습한 곳은 지금의 위귀힐 뒷쪽에 있는 아차산성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두번째 질문은 고양시 향토사가 정동일씨가 했는데 김민수씨에게 『고양시 탄현일대가 계백장군이 신라와 최후의 결전을 전개한 황산벌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첫배운것 같다』며 탄현일대의 황산비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했고 김영섭원장에게는 신도비 등 비석의 머리에 용문을 새기고 명칭은 「이수」라고 하는데 「이수」는 용머리인지 이무기 머리인지를 물었다. 김민수씨는 「황산」은 「지금의 강변 둔치를 말하며 따라서 황산은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데 지금의 고양시 탄현일대는 삼국시대 계백현이었고 백제 최후의 결전지가 이곳이 분명하다. 이는 94년 본인이 발표한 「한강유역에서의 삼국사의 제문제」에서 고증을 하여 확실한 설명을 하였다. 내 주장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이제 역사학계에서 대답할 차례다』고 대답했다. 김영섭 원장은 『비석머리를 이수라고 부르지만 용머리가 분명하다. 다만 용은 통치자인 왕을 상징했으므로 함부로 용자를 쓰지 못하고 이자를 썼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발표회가 모두 끝나고 서울 동작문화원 고전무용팀이 나와 장고춤, 부채춤, 입무 등을 추어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었고 곧이어 만찬이 시작되었다. 이날 만찬에서 건배사는 윤청하 국립중앙박물관 사무국장이 하였다.

이번 15회 발표회는 과거 발표회와 식사를 만장소에서 할 때에 비해 질서있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성공적인 학술모임이 되었다.☞



“아차산 산신령이 부르나봐요”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향토사가 김민수씨(53)에게 올 겨울은 따뜻하다. 그의 메아리 없는 주장이 비로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7일 전국문화원연합회가 개최한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한 김씨는 함박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다. “나날이 부풀어 가는 가족들의 고통을 보는 것 보다 더욱 참기 어려운 것은 주위의 조소와 멸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향토사에 입문하면서 부터 줄곧 제기해온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무엇보다 기쁩니다”

사실 김씨는 이제까지 강단 사학자로 부터 ‘이단아’로 불려왔었다. 주장이나 학설에 따라 계파가 갈라지는 학계의 어두운 풍토로 볼 때 그는 싫어하고도 남을 인물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존재였다. 어느 것 하나 책상에 앉아 허투루 끼어 맞추는 법 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현장을 발로 뛰며 숨겨진 유적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강단사학자로 부터 ‘이단아’로 불려

대상 수상작인 ‘峨嵋山에서의 古代史의 諸問題’라고 다를 게 없다. 그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다. 특히, 이 논문은 그동안 학계가 정설로 주장한 고대 한강하류를 중심으로한 삼국의 전도(戰圖)를 180도 뒤집는 것으로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서 대상을 수상한 김민수씨. 이날은 양복에다 넥타이를 맸지만 보통때는 점퍼에다 등산모를 쓰고 다닌다.

상대편에서 보면 일종의 '도전장'이나 다름 없다.

김씨는 “조선 숙종때 피성으로 세워진 고양시의 북한산성(北漢山城)이 신라의 북한산성(北漢山城)일 것이라는 추측은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성(阿且山城)이 바로 신라의 북한산성(北漢山城)”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또 “동일한 것으로 여겨져오던 아차산성(阿且山城)과 아차성(阿且城)은 별개의 성곽으로 아차성(阿且城)은 백제의 성곽이며 현재 이자리에는 선경그룹의 사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논증하는 자료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 이를 풀이한 대동지지(大東地志), 일본인들이 작성한 조선보물고적조사보고(朝鮮寶物古蹟調査報告), 그리고 광개토대왕릉비를 들었다. 그는 또 “결정적으로 최근 아차산성 지표·시굴 조사를 통해 발굴된 신라 외편의 ‘北漢’이란 양각 글자가 아차산성이 신라의 북한산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렇게 김씨가 무엇보다 양대 성곽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해두는 것은 신라가 육군 작전을 벌였다는 기존 학설을 반박하고 수군 작전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신라가 육군 작전이나 수군 작전이나에 따라 신라와 백제의 첫 전투지인 황산벌의 위치도 달라진다는 것.

“특히, 신라가 백제를 정벌할 때는 당나라의 소정방 부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강하류로 출정했습니다. 이를 백제의 계백장군이 눈치채고 저지한 전투가 바로 황산벌 전투입니다. 이 때의 황산은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큰 강변 곳곳에 있는 고수부지 즉 둔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황산벌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충남 논산이 아니라 경기도 고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SBS 탄현 촬영소가 있는 곳이지요. 이러한 지역을 망라한 고양시의 옛이름이 바로 개백현으로 개백현(皆伯縣)의 개(皆)와 계백장군(皆伯將軍)의 계(皆)는 국어음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발음

표기에서는 똑 같습니다. 이 곳에서 싸운 장군이 계백장군이라는 것이지요”

황산벌이 논산이 아니라 고양이라니? 한순간 머리속이 뒤죽박죽된 느낌이다. 그러나 김씨는 간단히 혼란스러움을 없앴다. “황산벌 전투에서 죽은 김유신의 조카인 반굴과 관창등 두 화랑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돈지간인 태종무열왕은 장의사란 절을 창건했다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보물 235호로 지정된 당간지주가 남아있는 현 서울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 자리로 경기도 고양시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만일 황산벌 전투가 논산에서 벌어졌다면 이렇게 먼 곳에다 절을 지었을까요?”

황산벌은 고양땅… ‘바보온달’은 僞作

그의 주장은 또 하나의 신화를 깨뜨린다. 바보온달은 ‘바보’가 아니라 고구려 영양왕때 신라와의 전투에서 단 한번의 패배를 기록했던 고승(高勝)장군이라는 것. 나중에 국난에 봉착한 고려가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여지와 보은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려가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전투를 아차성(阿且城)이라고 한 의도 역시 고구려의 국명을 계승한 고려가 광개토왕과 장수왕때의 아차성을 환기 시킴으로써 재기의 여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한다.

이처럼 김씨가 향토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실로 우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89년 늦 여름 화마가 할퀴고 간 아차산 기슭을 지나다 우연히 돌무지들을 보면서 부터다. 돌무지들의 흔적이나 배열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라고 생각했다. 그 때부터 ‘누가 만들었을까?’ ‘언제…’ ‘무엇때문에…’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아차산 부근으로 이사까지 했다. 그러지 올해로 꼬박 12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균 1년에

1백일은 답사를 다닌다고 한다. 언제나 점퍼에다 등산모를 쓴 차림이다.

‘보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철칙

그의 철칙은 ‘보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는 것. 들판에 굴러다니는 돌맹이도 예사로 보지 않는다. 멀리 떠날 때는 5일정도의 일정을 잡는다. 비용도 만만찮다. 지금은 이름이 알려져 각종 단체나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부르는 덕에 용돈벌이가 쏙쏙하지만 생활비에 미칠 만큼은 못된다. 결국 호주머니돈을 털어야 답사를 떠날 형편. 그렇다고 소풍처럼 즐거운 것만도 아니다. 한번은 경기도 연천군 호로고루성 남쪽 부근에서 유적들을 정신없이 찾다 자신도 모르게 그만 민통선 경계지역을 넘어서는 바람에 중무장된 군인들에 포위돼 손을 든 채 끌려나오기도 했다.

또 한번은 파주군 소재 수철성을 답사하다 옆에 있는 아미성이 궁금해 이동했다가 날이 저물어 6시간동안 해마다 겨우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 그 때 처음으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수집한 유물은 어떻

게 하고 집에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들 둘은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 말한다.

그라고 언제나 열정에 넘쳤던 것은 아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향토사 연구를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고 마음 먹기도 두어번. 그러나 이 때 마다 “아차산신이 부르는 것처럼 빠져들어갔다”고 말한다.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만 쉬어도 좀이 쑤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할 지경이에요”

김씨는 답사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꼭 남긴다. 학계나 주위의 비웃음을 피하기 위해서란다. 해마다 1편정도 쓰기로 맘 먹은 논문이 지금까지 ‘고조선의 시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 ‘나당 연합군 백제정벌 루트의 재검토’ 등 총 8편에 이른다. 아차산에서 고구려의 15개 보루성을 다 발견해낸 것은 지금까지 그가 쌓은 고고학적인 최고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죽을 고비도 여러번… “문화센터 건립” 꿈

김씨는 제주 출신으로 신성여고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상경해 한동안 건설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경기도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를 거쳐 광진문화원 향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9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한강 영역에서의 삼국사의 고찰’과 그 다음해 10회 대회에서 ‘한수의 개념과 고구려의 남평양의 고찰’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연속 수상했다.

그는 앞으로 지금까지의 학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정리할 계획이다. 머잖아 ‘예맥(濊國)의 고대사 연구’에 대해 책을 내기 위해 준비중이다. 그는 또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향토사와 생활강좌를 들을 수 있는 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 아차산성 남벽봉괴시 석축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김민수씨

새 역사를 열면서

김민성

새아침이 열리고 있다
2001년 새날은 마구 달리고 싶다
새 역사가 트이는 창조의 불꽃은
또 다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백두산에서 한라산에서
압록강에서 낙동강에서
새로운 태양으로 더욱 빛나는
새역사가 달음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희망의 시작이여 빛나거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야망이
이제 솟구칠 날이 되었다
그동안 움추렸던
IMF의 어둠도 살라먹고
흥년들어 굶주린 들판도
울분과 피곤이 쌓였던 공장에서도
이젠 그런 것 훨훨 떠나보내고
오래도록 숨겨온 음모도 부셔버리고
우리끼리 멋있게 살아보자고
새날은 달음박질로 오고 있구나

태양은 지금 철철 넘치는 정열로
새날의 소망에 불을 지피고
환한 햇빛이 되라고, 출발이 되라고
새벽 종소리로 울리고 있다
빛나는 이 아침을 힘차게 내 걷자
어서 새 아침을 내 걷자.



김민성 시인은 현재 부안문화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안여중고 재단이사장. 1960년 '자유문학' 시 추천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내리막길 여행을 떠나며' 등 저서가 다수있다.

이제는 ‘우리 전통 문화’ 밖으로 나갈 때!

흔히 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한다. 이제 문화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력의 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문화도 보존·보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속의 한국문화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다. 이렇게 볼 때 전통문화의 해외선양은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인하는 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속에 한국이란 국가의 문화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독일 니더작센주 하노버시에서는 하노버엑스포2000이 열렸다. 한국도 한국관을 설치하고 전세계에 한국의 비전을 소개했다. 이번에 개최된 ‘EXPO2000 Hannover’는 “인간-자연-기술”(Humankind-Nature-Technology)을 주제로 독일 통일 10주년 및 2000년을 여는 독일 최초의 BIE(세계박람회기구)공인 등록엑스포(70년 오사카, 92년 세비아EXPO이후 최초 등록엑스포)이다.

하노버엑스포2000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일치하게 모든 문화행사의 주제를 “인류의 지속가능한 문화발전”으로 통일했다. 또 전체적인 큰 흐름은 자국관의 건축디자인, 설치미술, 그리고 기술과 문화·환경을 나타내는 비디오아트 기술적 표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관은 엑스포 전체주제와 주요테마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맞추어 물, 생명의 원천(Water - The Origin of Life)이란 주제로 구성했다. 물을 되살리려는 한국인의 노력과 맑은 한강에 대한 비전을 인류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물을 생명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맑은 물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발이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여기에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의 소개로 한국을 체험케 하고 홍보하려 노력했다. 일본관도 CO2를 기본과제로 선정해 우리에게 직면한 환경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었다.



이 원 복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근무〉

하노버 엑스포 2000에 한국전통공예품 전시해 ‘눈길’

한국관은 부지면적 3,700㎡(50m×74m) 건축면적 2,371㎡의 임시독립

관 형태로 인도,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국가관들과 함께 위치했다. 우선 건축면을 보면 이전까지의 한국적 전통이미지에서 탈피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천년을 향한 문화와 기술을 실은 모던한 배의 이미지로 디자인했고, 건물 외부이미지는 조각보의 문양을 응용해 영상·전시 내용을 정성스럽게 쓴다는 의미를 함축했다.

영상은 새로운 멀티시스템으로 대북치는 모습, 보리순이 올라오는 모습, 세계 여러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미소짓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담아 문명발달과정에서 파괴된 환경(지구)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자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대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시내용은 물을 삶의 터전이자 공존의 생명체로 여겨온 한국인의 사상과 문화를 주 내용으로 삼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된 물을 되살리려는 한국인의 노력을 다각적인 전시기법을 통해 소개했다.

또한 극장에서는 신가희금림무용단이 부채춤, 삼고무, 사물놀이 등 민속무용을 매일 4회씩 공연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1층의 개방된 공간에는 전통공예 명품전시, 기능

보유자 및 명장들의 전통공예 제작과정 시연장, 문화상품 판매의 한국문화상품관과 한국식당, 그리고 한국의 문화·예술·산업·자연을 소개하는 정보검색코너와 2010년 여수해양엑스포 유치홍보코너를 마련했다.

특히, 하노버엑스포2000의 개막식 특별공연으로 한국의 안동차전놀이가 6월 1일부터 6월4일 동안 1일 2회씩 실시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문화상품관은 한국전통공예의 멋스러움(Splendor of Korean Traditional Handicrafts)을 주제로 전시, 시연, 판매의 3개분야로 구성되었고 108㎡규모로 한국관내 1층 관람객 퇴장동선 좌측에 위치했다.

한국인의 전통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서안, 머릿장, 소반, 색실상자, 매듭, 거문고 등 안방과 사랑방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과 대표적인 전통공예품 44종이 전시됐으며 관람객들은 맑고 투명한 옥공예품, 정교하고 화려한 자수공예품, 밝고 빛나는 나전칠기 작품앞에서 자주 발길을 멈추었다.

나전칠기장, 낙죽장, 목조각장, 하회탈제작, 침선장(전통한복만들기), 보자기만들기, 단청·불화그



△ 한국관 전경



△ 한국관 입구에서의 박찬수씨와 그의 작품



△ 문화 상품관 전경



△ 화각장 시연 장면

리기, 매듭제작, 각자장, 화각장등 10종류의 전통공예를 한달에 2분야씩 15일간격으로 제작과정을 시연해 10명의 전통공예가들이 자신들의 예술세계를 보여주었다.

나전장 기능보유자인 이형만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예품인 나전칠기의 공예기술을 시연했고, 김기찬씨는 고열의 인두를 가지고 대나무로 된 빗과 비녀위에 은은한 그림을 그리는 낙죽공예를 보여주었다. 또한 목조각장 기능보유자인 박찬수씨는 참나무와 자작나무로 함박 웃거나 미소짓는 한국인의 얼굴을 목조각하는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었다. 조각되어 세워진 장승들은 한국에서 마을 입구에 세워져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처럼 역시 엑스포장의 한국관을 지켜주었다. 김완배씨는 국보 121호로 지정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탈을 재현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고, 구혜자씨는 아름다운 우리 전통한복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현희씨는 전통보자기 만드는 법을, 김용우씨는 금분으로 부처님을 그리는 모습을, 김혜순씨는 우리 매듭의 고상함과 우아함을 각각 선보였다. 각자장 기능보유자인 오옥진씨는 노구의 몸으로 한글을 나무에 새겼고, 화각장 기능보유자인 이재만씨는 화려한 화각 생활용품 만드는 소뿔판에 민화를 그렸다.

문화예술가의 퍼포먼스 어우러져 '눈길'

한국적인 이미지가 담긴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코너는 중국관, 인도관, 아프리카관들의 저가 상품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려웠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상품으로 판매증진에 노력해 청자를 이용한 찻잔과 자개를 활용한 생활용품들과 목가구들이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 기간에는 특별한 행사도 열었다. 시연 퍼포먼스로 박찬수씨의 장승목조각 시연과 풍장패사물놀이의 사물연주 그리고 독일 함부르크에서 활동하는 재독 서양화가 방연자씨의 입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행위예술이 어우러진 멋진 퍼포먼스무대를 가져 많은 관람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시연에 참가한 전통공예가 몇 분이 독일사회에 우리 전통공예품을 널리 알려 달라고 기증을 위임해 본에 있는 재독한인연합회(회장 민명동)에 전통공예품 4종과 하노버한인회(회장 최승수)에는 교민회관앞에 세우도록 남·여장승 한쌍을 그리고 뤼네부르거 하이데에 있는 티벳불교사원에는 장승 11점을 기증해 독일사회에 오랫동안 우리 공예문화가 소개되도록 했다.

또한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조직위원회 사무실 건물 2층 프로토콜 라운지(PROTOKOLL-LOUNGE)에 작가 4명의 작품 16점을 8월중 전시하였다. 이 곳을 찾는 각국의 많은 귀빈들에게 우리의 전통공예품을 소개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무엇보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전통공예품의 판매를 시연과 연계해 상품의 고급 이미지를 살리는 한편 현장성에서 직접 복을 칠 수 있게 하는 등 관람객의 체험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뒀다. 그러나 언어, 의식, 생활등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시



△ 전통매듭 시연장면

행착오도 생겼다.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그 문화에 맞추어 전통공예를 소개하는 효과적인 설명 방법과 이미지 전달수단이 미흡했고, 공예작품과 시연내용을 설명하고 안내를 맡은 교포2세에 대한 교육의 부족함 등이 드러났다.

문화관광부 문화상품과 지원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추진한 문화상품관의 효과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체 입장객을 상대로 한 오픈된 공간에서의 문화사업은 무형의 긍정적인 문화적 국가이미지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적 이미지의 전시와 시연 및 문화상품 보급은 상품을 고급이미지로 인식시킴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외국사람에게 그 나라에 호감을 갖도록 건설한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데는 스포츠, 경제활동, 정치, 역사, 사회, 관광 등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 우리문화 소개활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된다.

해외문화선양은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몫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해외보급을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노력을 살펴보면 세계 여러 박물관에 한국관 설치, 한국문학의 외국

어번역출판 보급, 해외순회 공연 및 전시회 개최, 각종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지원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 또한 그런 활동의 일환이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위상을 높이고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과성 행사

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꾸준히 실천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활동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에게도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일체감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행사를 통해 만나는 교포, 교포2세, 유학생, 입양아 등이 자기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한 사업과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지인들이 아시아권으로 먼저 떠올리는 나라는 일본, 중국, 태국 순이다. 한국은 그 다음이다. 더욱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으로는 분단상황, 데모, 대형사고 등이고 긍정적으로 올림픽, 빠른 경제 발전이라 한다. 독일인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남한에서 왔느냐, 북한에서 왔느냐” 남한(South Korea, Su'd Korea)에서 왔다 하면 “왜 북한과 함께 오지않았느냐” “언제 통일될 것이냐”로 이어진다. 이것은 분단국가로 살았던 독일인의 관심과 더불어 3월에 있었던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과 베를린 선언,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언론을 타고 독일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런 이미지가 심어졌다고 판단한다. 이것을 아름답고, 문화유산이 풍부한 나라, 월드컵, 남북교류, 통일로 이어지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이미지로 재창출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전통문양 집계·엽서·책갈피 만드는 신수권 ‘연두와 파랑’ 대표

“그들의 그릇에 우리의 문화를 담는다”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연두와 파랑’은 포인트를 아는 문화상품 개발업체다. 올해로 창사 4년째에 접어드는 이 회사가 만드는 품목이라고 해봐야 혼란이 일어난다. 엽서, 그리고 전통문양집계. 하지만 기존의 상품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색다른 느낌을 붙여넣었다.

시중에 널려 있는 팬시 제품에 한국적 이미지로 포인트를 주었다. 대표적으로 전통문양집계가 그렇다. 앤틱 금도금이라는 방식으로 고풍스런 분위기를 자아낸 후 ‘꽃창살무늬’ ‘봉황무늬’ ‘단청무늬’ 등 오방색의 우리네 각종 전통문양을 새겨 넣었다. 한결같이 서양인들의 눈길을 붙잡을 만한 상품들이다.

문방구에서 노랑 빨강 파랑등 칼러 집계가 나오긴 해도 이처럼 우리의 문양이 아로 새겨진 집계를 보기는 처음이다. 이것으로 ‘연두와 파랑’은 2000년 서울시문화상품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엽서는 강력한 홍보 수단”

또 바로 전해엔 한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담은 엽서로 똑 같은 상을 수상했다. 이 회사 신수권 사장(46)은 문화상품 분야에 발을 들여놓고 처음으로 개발한 게 엽서라고 말했다.

첫 상품치고는 너무 싱겁지 않나 해서 물어봤다.

- 어떻게 해서 엽서를 만들게 됐나요?

“이 한 장의 엽서는 강력한 홍보 수단입니다. 외국인들은 여행을 다니다 몇자 적어 고국에 엽서를 보내길 즐겨하는데 이를 받은 사람들은 엽서 한장으로 그 나라를 상상하며 평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엽서 만큼 값싸면서도 관광을 촉진하는게 없어요”

그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시중에 나와있는 엽서들이 슬라이드 대여료 부담 때문인지 오래된 사진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세련되지 못해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신수권 ‘연두와 파랑’ 대표

이런 현실에 착안한 그는 ‘엽서’라는 그릇에다 ‘한국의 문화’를 담았다. 나름대로 눈길을 머금게 하는 ‘한국의 고궁’이나 ‘탈’·‘백두대간’ 등을 담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위해 슬라이드 필름 한 컷당 매질로 50만원 상당하는 로알티를 지불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개발한 엽서는 9매들이·18매들이 두 종류로 세트수만도 ‘서울’ ‘한강’ ‘무형문화’ ‘전통문화’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이들 엽서만 펼쳐 놓으면 한국에 대한 긴 설명은 필요치 않는다. 한번은 미국 로스캐롤라이나로 이민가 살고 있는 한 부모가 국제전화를 걸어와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수업시간에 고향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하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몰라 했는데 ‘연두와 파랑’이 만든 엽서 ‘서울’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더라는 것.

그러나 신사장은 아직까지도 국내의 엽서 종류는 이웃 일본에 비해 매우 적다고 말한다. “일본은 스모 장면을 담은 엽서만도 일러스트·사진·회화등으로 6종이 넘게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소개하는 엽서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김사장의 문화상품 개발 전략은 한마디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단에 우리의 것을 담는다”는 것이다. 서양인들이 테이블보나 침대보의 귀퉁이를 묶는데 자주 이용하는 집게에 우리의 전통문양을 새겨 넣는 것도 이같은 생각에서다. 엽서도 마찬가지다. 여행을 다닐 때 몇자 적어 보내길 좋아하는 그들의 생활습관에서 아이템을 찾아낸 것이다. 이후 만들어진 책갈피도 독서 문화가 뿌리깊은 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에게겐 별 쓸모 없는 것으로 취급당하는게 현실이다. 서양사람들의 눈에 동양적인 색채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오방색도 우리나라에선 촌스럽게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디자인을 못한 탓으로 앞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하면



많이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버리지 않는다.

신사장은 책갈피에 관한 상품 소개서를 일어로 번역하면서도 이같은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선비를 사(士)로 쓰면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로 받아들여 하는 수 없이 학자(學者)로 표기했습니다. 또 ‘군자의 기개’라고 할 때의 ‘氣概’ 역시 그들의 문화에 맞지 않아 고쳐야 했어요. 이씨 왕조를 조선이라고 해야 옳은데 그러면 일본인들은 북한으로 오해할 우려도 있구요”

“상품과 작품은 분명히 구분해야”

이렇게 말하며 신사장은 “그들의 정서에 맞춘 문화상품이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에게 어느 날 파리에서 찾아온 문화상품 구매 담당자가 한 얘기를 들려줬다. 지난해 부채를 5종 구매해 갔노라고 말한 그 구매 담당자는 썬 값의 삼태극 부채는 동이 날 만큼 잘 팔려 30프랑하던 것을 나중에 50프랑으로 올려받기 까지 한 반면 고가의 사군자를 그려 넣은 비단 부채는 매출이 영 시원치 않았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원인은 가격이 아니라 이미지. 부채에 그려진 ‘태극’을 보고는 한국을 연상해내지만 ‘사군자’를 보고는 일본이나 중국의 상품이 아닌가 혼동하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비단 부채는 공예가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문화상품으로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삼태극 부채’와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작품

과 상품은 구별돼야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작품보다는 상품쪽의 손을 들고 있다. “이응로 화백의 그림은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문화상품으로 만들어내면 생활의 한부분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상품 개발 업체인 ‘연두와 파랑’은 샤넬과 같은 국내 최고의 디자인 회사를 지향한다. 상품 기획과 디자인·포장지 개발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금속 가공이나 채색은 외부 용역을 줌으로써 효율을 높인다.

현재 서울 60여 군데 소매상과 직판 거래 하고 있으며 도매상 5군데를 통해 지방과 연결하고 있다. 독일 하노버나 파리 전시회에도 출품해 해외 홍보와 수출 길을 트고 있다. 한달에 엽서(세트당 3천~5천 원)가 5천세트, 책갈피(3천원)가 8천~1만 본 가량 나가는데 구매층을 보면 외국인이 70~80%, 내국인이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전통문양집게는 아직 상품화 단계다. 또 연말연시엔 연하장 부착용 스테인리스 판(개당 5천원)을 제작해 은행·증권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김홍도의 무동 등 이들 회사가 요구하는 그림을 부식기법으로 새겨주는 매력때문에 고객관리가 중요한 기업체의 마케팅

팅과 홍보용 판촉물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연두와 파랑이 합쳐지면 생명의 색깔”

‘연두와 파랑’은 신사장과 3명의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두달에 한번씩은 신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 초에는 신세대 취향에 맞춘 타원형 포켓 거울과 ‘태권도’를 테마로 한 엽서를 상품화 하기 위해 구상중이다.

그러나 이같이 문화상품 개발가로 변신한 신사장은 연세대 사회학과 74학번으로 졸업후 낙향해 첫 소농장을 경영하던 축산인이다. 이후 농민회가 구매 유통사업단으로 세운 ‘파랑새’에서 전문경영인으로 5년동안 활동했는가 하면 사진에도 관심이 많아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짊어 메고 히말리야산맥을 오르는데 월간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도 맹활약했다.

인터뷰가 마무리될 즈음 한마디 운을 띄웠다.

— ‘연두와 파랑’이란 회사명이 동화적인 느낌이에요?

“연두는 봄의 색깔이요, 잉태의 색깔입니다. 여성의 색깔이기도 하구요. 파랑은 가을의 색깔이자 수확의 색깔입니다. 남성의 색깔이구요.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면 연두와 파랑의 섞여 녹색이 되듯 생명의 색깔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연두와 파랑의 문화상품들

‘연두와 파랑’의 첫 상품은 한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담은 엽서다. 20여종. ‘서울’ ‘코리아’ ‘일러스트 Once upon a time in korea’ ‘금동원’ 등은 18매 들이로 한 세트당 5천원이다. 또 ‘나의 서울’ ‘한강’ ‘무형문화’ 전통문화’ ‘웅기’ 등은 9매 들이로 한 세트당 3천원.

책갈피는 태극문양등을 넣은 것으로 3천원. 그리고 곧 시판될 전통문양집게는 10가지로 창살 꽃무늬 집게·나비무늬 집게·떡살무늬 집게·보자기무늬 집게(대·소), 봉향무늬 집게, 단청무늬 집게(대·소), 꽃무늬 집게(대·소)등이다.

또 김홍도의 그림등이 그려진 주문형 연하장용 스테인리스 판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초엔 신세대를 겨냥한 타원형 포켓 거울도 개발할 계획이다.



선진생활문화 강연회

서울시지회

서울시지회 주관으로 전국순회선진생활문화강연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6회에 걸쳐 성황리에 끝났다. 2천9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강연회는 성동문화원에서 2차례 그리고 중랑문화원·동작문화원·광진문화원·관악문화원에서 각각 1회 개최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문화원주관 지역선진생활문화강연회도 계획대로 각 문화원에서 열렸다. 다음은 강연회 실시현황.

▲성동문화원 △일시:11월 22일(수) 14:00~15:00 △장소:성동구민회관 대강당 △강연자:서상록(롯데호텔 웨이터) △참석인원:468명

▲중랑문화원 △일시:11월 23일(목) 17:20, 18:20 △장소:중랑구민회관 대강당 △강연자:박정희(전 YMCA회장, 한국여성환경회장) △참석인원:577명

▲동작문화원 △일시:11월 27일(월) 14:00~15:00 △장소:동작문화센터 대공연장 △강연자:박경하(중앙대학 교수) △참석인원:637명

▲광진문화원 △일시:11월 29일(수) 13:00~14:00 △장소:광진문화원 대강당 △강연자:김상근(제2건국위 상임위원장) △참석인원:225명

▲관악문화원 △일시:11월 30일(목) 10:30~11:30 △장소:관악구민회관 대강당 △강연자:정기영(전중앙도서관장) △참석인원:126명

▲성동문화원 △일시:12월 12일(화) 14:00~15:00 △장소:성동구민회관 대강당 △강연자:이효중(성동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참석인원:642명

총 6회에 걸쳐 3천명 참석 '대성황'

서울지회

“相殺은 가고 相生의 시대가 와야 한다”

김상근 제2건국 상임위원장 강연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 지회(지회장 이영철) 주관으로 열린 세번째 생산적 선진생활문화강연회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1시 광진문화원 지하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초빙 강사는 김상근 제2건국위 상임위원장(민화협 공동의장)으로 6.25때 처참히 죽어간 부친의 이야기를 비롯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가며 “상살(相殺)이 아닌 상생(相生)의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참석자들로 부터 큰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는 이

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 정영섭 광진구청장·권영선 광진문화원장등 주요 인사와 주민등이 참가해 강연을 경청했다. 다음은 김상근 제2건국 상임위원장의 강연요지

△ 김상근 상임위원장



△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관내 주요인사와 구민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1980년에 읽은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은 우리에게 까마득한 얘기였다. 그것은 정보혁명의 도래로 요약할 수 있다. 그의 예언은 현실로 나타났다. 지구가 마치 탄광촌처럼 여기저기 땀뿜 뿜려 헐떡거리는 공업 문명을 지속하는 이상 얼마 안가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마당에 정보·지식산업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핸드폰 하나면 길이 막히는 지를 안다. 세계가 촌락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와도 산업화·공업화는 떨쳐버릴 수 없다.

어느 경제철학서의 제목처럼 ‘제4의 물결’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기업은 상생·통합·일치를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문명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표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후 냉전이 뿌리내리면서 이데올로기 종교화를 겪어야 했고 남북대결구도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다.

나는 6.25 피해가족이다. 아버지가 이북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어린 시절 시체가 널려져 있는 곳에서 거적대기를 뒤적거리며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헤맸다. 사람 썩는 냄새가 그토록 지독한 줄 미처 몰랐었다. 겨우 수소문 끝에 찾아낸 아버지는 얼굴 가죽이 벗겨진 채 죽어 있었다. 나중 내가 통일운동가로 변신하면서 이 점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남쪽 사람이 이 정도 당했으면 북쪽 사람도 그만큼 당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북쪽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을 못했다.

이 만큼 사고가 경직해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급서로 묶인 ‘조선근대사’를 읽어본 적이 있다. 북한의 역사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에는 ‘놈’ ‘새끼’라는 표현이 종종 나온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도

죽었구나' 고 생각했다.

이제까지 남북의 문화는 상살(相殺)의 문화였다. 반공·반제만 내세우면 다 용납되어 우리에게 도덕적 황폐화·심성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한번은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 경찰관에게 걸려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자 그 경찰관이 뭐하는 분이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부끄럼을 무릅쓰고 사실대로 목사라고 대답하자 '목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처음 봤다' 고 말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기차안에서 문을 꼭 닫고 지나가고 신문도 앞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접어

서 본다.

간혹 교회에서 '승리하는 생활 합시다' 고 말하는 것을 본다. 지난 시대 잘못된 사회의 유물을 신성한 교회가 답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누가 이기고 죽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 이 중요하다. 부락마다 특성과 자부심이 있다. 광진구는 어떠한 문화가 있는가? 지난 시기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 과정에서 무너진 것은 고쳐 나가자. 그 원리는 '더불어 함께 살기' 다. 그래서 '광진의 특성과 맛깔, 문화적 때깔' 을 만들어 나가자.

광진문화원

자신의 내면에 침잠할 때 가장 높은 곳과 만나

김용남 성균관대 유학과 강사 강연

지난해 11월 29일 광진문화원에서 열린 서울시 주최 강연회에 이어 광진문화원 1차 선진생활문화강연회가 김용남 성균관대 유학과 강사(광진문화원 한학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유교의 예' 를 주제로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또 12월 2일 열린 2차 행사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김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현대과학과 종교' 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다음은 김용남 성균관대 유학과 강사의 강연 요지.

(유교의 예)

사람에게 마음이 있듯이 천지에도 마음이 있다. 사람이 행복하고자 하듯이 우주도 행복하고자 한다. 사람이 지켜야 할 예(禮)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 주어서 천지가 행복해지게 되는 질서다.

천지가 행복해지면 천지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행복의 기반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대과학과 종교)

종교가 못 중생들을 제도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영생하게 해주는 가르침이라면 이는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다. 철저히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할 때에야 비로소 가장 높은 하늘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면으로 침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정신물리학과 연계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김용남 강사 ▷



서울시지회

21세기 정보화 시대 “독서가 사람 만든다”

정기영 박사 강연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지회장 이영철)가 주관한 4번째 생산적 선진생활문화 강연회가 11월 30일 정기영박사(전 국립중앙도서관장·현 세종대 겸임교수)를 초빙한 가운데 관악구민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강사로 나온 정박사는 “우리 민족은 잠재 역량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전제한 후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뒤지지 않기 위해 독서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최병훈 관악문화원장을 비롯해 이봉하 고문, 김윤철·오유근 부원장, 김희철 구청장, 박화석 구의회의장등 각계

주요인사와 주민 3백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정기영 박사의 강연 요지.

최근 우리의 문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우리는 오

◀ 정기영 박사

랫동안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왔던 민족이다. 이처럼 중국은 왜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이라 했는가? 일부는 중국을 침략한 적이 없고 조공을 받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도 의관을 정제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예를 지키는 등 굉장히 고급스런 문화를 향유했던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가운데는 ‘우리문화 뭐 볼 것 있어?’ 라고 자학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한 예로 우리의 한글 이외에 창제 의도가 있는 문자가 있는가? 없다. 불교도 그렇다. 인도에서 발생은 했지만 집대성한 것은 고려다. 이는 세계가 놀라는 팔만대장경이 잘 말해준다. 우리 문화유산이 60년대 처음으로 미국 메트로폴리탄으로 나가 전시를 가졌을 때 현지 언론들이 경탄해 마지 않으며 “이같은 문화를 창안하고 향유했던 민족은 다시 일어선다”고 밝힌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보이지만 전체적



으로 발전 지향적이다. 그 잠재역량을 우리가 믿어야겠다. 그렇지만 '옛날 문화 위대하다'라고 하는 식의 자화자찬에 머물러서는 잠재 역량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가 생활문화를 말할때 부정적 요소로 꼬집는 게 있다. 그것은 남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준법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흡연 경고 문구도 우리처럼 건강에 유의하라는 식이 아닌 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고 못박고 있는가 하면 탈세사실이 알려지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판단돼 그 동네에서 발을 붙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사회적으로 볼 때 '대죄'라 할 수 있는 대형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터지고 사람들도 육두문자를 쓰는 격한 성품이 돼버렸다.

왜 그렇게 됐는가? 책을 안읽어서 그렇다. 일본의 독서력을 따라잡지 못한다. 일본 신칸센 열차를 타보면 80%가 책을 읽는다. 독서를 하면 한나절만에 역사속의 인물을 두루 만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독서를 안하면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사교육비 만큼이나 책을 가까이하는데 신경을 써라.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고 지력(智力)사회이다. 앞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자녀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훌륭한 문화가족이 되길 바란다.

관악문화원

자신의 내면에 침잠할 때 가장 높은 곳과 만나

이문우 청년여성문화원장 강연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시지회 주관 생산적 선진 생활 문화강연회가 끝난 후에는 관악문화원 주관으로 여성의 전화 회장을 역임했던 이문우 청년여성문화원장을 초빙해 강연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문우 청년여성문화원장의 강연요지.

두 남녀가 만나 사랑의 열매로 가정을 이룬다. 서로 태어나고 자란 배경이 다른 두 남녀가 어울려 살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싸움도 일어난다. 양자의 관계가 온전해야 화목하게 된다.

가부장제 속의 여성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이름없는 병원에 가곤 하는 모습이 많았다. 모든 인간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데 발산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예전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됐지만 지금은 안그렇다.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특성이 무엇인지 자기 특성과 자기 자존감을 갖고 살아

가게 하는 것이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도 해낼 수 있어' 하는 자존감을 심어줘야 한다. 부모의 역할과 모습이 바로 자녀들에겐 선생이고 지침이다. 어느날 초등학생을 데리고 가는 부모가 함부로 길을 건너면 그 아이도 따라하기 마련이다.

교육은 뱃속에서 부터 진행되는 것이다.

가정의 문제도 대부분 부부갈등과 고부갈등에서 연유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룻 처럼 며느리를 친딸 처럼 아끼는 사랑이 필요하다. 남남이 진정으로 사랑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딸과 어머니 관계가 된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현대에 맞게 잘 풀어가면 선진생활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이문우 청년여성문화원장 ▷

서울시지회

“꿀찌에게도 갈채를 보내라”

이효종 성동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강연

서울시지회 주관으로 지난해 열린 여섯번째 전국 순회 선진생활문화 강연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2시 성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고재득 성동구청장·정금영 구의회의장·김희전 구의회의원·이몽영 행당초등학교장 등 관내 주요 인사를 비롯 행당초등학교 학생·부모등 구민 6백여명이 대강당을 꽉 메운 가운데 이효종 성동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초청 연사로 나와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강연했다. 이 과장은

학부모들에게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녀들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격려해 주라”고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한편 1시간여의 강연회가 끝난후에는 식후 공연프로그램으로 행당초등학교 합창단 연주회가 열려 동요와 캐롤송등이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다음은 이효종 성동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의 강연 요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학생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끌고 가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양해를 빌어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자면 아이들과 고스톱은 마음대로 안된다. 부모부터 경로효친사상을 실천수범해 자녀들에게 심어줘



◁ 이효종 성동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야 한다. 내 자녀의 결점을 지적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것도 고쳐야 할 점이다.

학교 안전사고는 폭넓게 이해해 달라. 학부모의 자기 중심적 생각은 버려야 한다. S.K.Y 대학만 고집하지 말고 각기 1등할 수 있는 인자를 찾아 키워주어야 한다. 꼴지에게도 갈채를 보내라. 자녀들을 자주 격려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제공해 주는 한편 남과 협력할 수 있는 인격체로 길러 주어야 한다.



금천문화원

2회에 걸쳐 주부 · 청소년 대상 교육

김상배 · 강영숙씨 강연

서울 금천문화원은 두번에 걸쳐 선진생활문화 강연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개최된 강연회는 11월 20일 관내 경일경영정보고등학교 강당에서 강영숙 예지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집안을 다스리는법, 부부간의 신뢰, 예절, 준법정신, 인성교육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는 문화원 회원과 주민들 250여명이 참석하여 강연을 경청하였다.

두번째 선진생활문화 강연회는 12월 2일 금천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강연회는 문화원 회원과 주민들 550명이 참가했으며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 김상배씨를 강사로 초빙하였다.

김상배씨는 수능시험이 끝난 고3학생들이 많이 참석한 점을 감안 청소년들이 지켜야할 생활문화를 주로 다루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은혜, 겸손한 생활태도 이웃사랑 정신, 공중도덕 준수, 전문문화

의 미풍양속 계승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였다. 부모들과 함께 강연을 들은 청소년들은 열심히 강연을 듣고 메모까지 하는 등 자못 진지한 자세를 보였다.



부산강서문화원

고교생 '생활문화와 5S정신' 강연

송경주 경남정보대 명예교수 강연

부산강서문화원은 12월 6일과 8일 각각 부산강서고 260명과 부산대저고 390명을 대상으로 송경주 경남정보대 명예교수를 초빙해 생활문화와 5S정신을 주제로 지역현장선진생활문화강연회를 가졌다.



인천·강화·부평문화원

영하 5도 날씨 불구 5백여명 몰려

이순재 중랑문화원장 강연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순회 선진생활문화강연회가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2시 인천연수구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강연회는 인천문화원과 강화·부평문화원이

합동으로 주관하였는데 영하 5도의 쌀쌀한 날씨에도 500여명의 청중이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이순재 중랑문화원장은 90분에 걸쳐 「우리 생활문화 중 버려야 할것과 가꾸고 계승해야 할것」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곁들여 재미있게 진행해 청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강연이 끝난후 고전무용단의 무용공연과 기타 합주가 있었는데 참석자들은 노래를 합창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강연회는 대성공이라는게 중론이었다.



동두천과 수원서 성대히 열려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강연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최 경기도지회 주관 선진생활문화 강연회가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경기북부지역 문화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는 지난해 11월 24일 동두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500여 문화원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한인석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비롯 방재환 동두천시장, 김택기 동두천시의회 의장, 송승영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과 경기 북부지역 소재 문화원장 및 회원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강연을 맡은 이수홍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우리의 전통 생활문화중에는 계승해야 할 미풍양속이 많이 있으나 사회가 변모하면서 많이 변질되고 퇴색되어 다시 가꾸어야 할 것이 많고 또 개중에는 세계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것도 있어 좋은 것은 계승해야 하지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우리가 세계 무한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선진국에 손색없는 선진 생활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생활문화가 나라 발전의 바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12월 5일에는 수원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경기 남부지역 문화원가족 3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역시 선진생활문화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는 심재덕 수원시장, 송승영 경기도지회장과 많은 문화원장들이 참석하여 허정의학박

사의 강연을 경청하였다.

허정박사는 우리의 생활문화와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에 대하여 재미있게 강연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강연이었다는 호평을 들었다.



◁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청양문화원

사존이 땅사면 배가 아픈 '심술문화'를 버리자

출향작가 이은집씨 강연

지역현장 선진생활문화 강연회가 지난해 11월 23일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청양문화원(원장 안종일)이 주관한 이날 강연회에는 800여명의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란 주제로 출향인 이은집 작가의 강연이 펼쳐졌다. '새천년 가꿀문화! 버릴문화!'란 주제로 가진 이날 특강에서 고향의 메마른 문화현실에 대한 애처로운 심경과 함께 작가 특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머와 재치를 가미하는 다재다능한 화술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이은집 작가는 특강을 통해 가꿔야 할 생활문화로 ▲ 내고향 농촌을 꽃밭의 낙원으로 가꾸자. ▲ 이웃간에 웃음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자. ▲ 각 가정

과 마을과 읍·면의 역사를 창조하자. ▲ 내고향의 특산물을 전국적인 명산물로 만들자. ▲ 연구하고 노력해서 명예로운 노년을 살자 등 다섯가지로 꼽았다. 또 버려야 할 다섯가지로는 ▲ 가족간에도 흥만보는 험담문화를 고치자. ▲ 남이야 죽건 말건 나만 살지는 경쟁 문화를 깨뜨리자. ▲ 무슨일이건 협조보다는 뒷말만 많은 참견문화를 바꾸자. ▲ 지나치게 무뎌죽거나 불친절한 목석문화를 없애자고 강조했다. "이기고도 지는 싸움! 지고도 이기는 싸움!"을 콩트로 비유하며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김천문화원

생활문화 바로서야 선진국

안길룡 박사 강연

김천문화원에서는 지난해 11월 23일 문화원 대강당에서 안길룡 박사를 초청한 가운데 선진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강연회를 가졌다.



중고교졸업예정자대상 ‘법고창신’ 강조

의령문화원은 지난해 11월 의령고등학교 행사에 이어 12월 22일 의령여자중고등학교강당에서 중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50여분간의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는 허원장이 직접 연사로 나섰고 학생과 교사등 200여명이 참석했는데 “전통문화를 경시하는 사회풍조와 함께 외래문화만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온고지신 또는 범고창신의 자세가 절실히 요청됨을 강조하는 한편 개인(나)과 가족(가정) 그리고 사회(향토와 나라)를 생각하는 선진생활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신제가(修身齊家)를

위한 실천덕목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한편 향토문화예술의 중흥을 위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각계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함을 덧붙여 강조했다.



문화시민은 남도는 마음가짐부터

마산문화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2시 마산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선진생활문화 두번째 강연회를 가졌다.

첫번째는 청소년 400여명, 두번째는 50·60대 노인 300여명이 모인데서 허종성 연사는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기쁘게하고 사회를 넉넉하게 함으로 문화시민은 항상 남을 돕는 마음이 짐이 몸에 베어 있어야 한다는 등 사례중심의 강의를 해 박수를 받았다.



진해문화원

선진생활문화실천은 가정에서 국가로

이효재 前 이화여대 교수 강연

진해문화원은 지난해 11월 21일 10시 30분에 문화원 회의실에서 문화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효재 前 이화여대 교수를 초청하여 선진생활문화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효재 교수는 여성을 중심으로 선진생활문화의 실천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사회, 국가적으로 확산된다고 여성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다.



전북지회

“문화는 정신을 살찌게 하는 양식”

차범석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강연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최 전북도지회 주관 선진생활문화 강연회가 지난해 12월 5일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에서 전북도내 문화원회원 4백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강연회는 대한민국예술원 차범석회장을 연사로 초청, 한시간동안 실시되었는데 군산·고창·김제·순창·무주 등 원거리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문화원장이 회원들을 인솔하고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강연회가 개최된 전주시에 있는 전주문화원에서 문

화원장은 물론 회원들도 나오지 않아 옥의 티가 되었다. 강연에 앞서 김병학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북도지회장이 등단하여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강사를 소개하였고 곧 이어 차범석 회장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11시 30분 강연이 끝난후 30분간 전통무용과 민요창 등 위안공연이 벌어져 청중들을 즐겁게 했다. 이날 차범석회장의 강연요지는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들먹이고 고장마다 자기 고향이 예향이라고 자칭하지만 과연 그만큼 역량을 갖추었느냐고 자문했을 때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문화란 엄청나게 어려운게 아니다. 문화는 지식과 관계없이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무언중에

남을 교화하는 힘이다. 지식이 아닌 교양이 곧 문화다. 인간답게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이 문화다. 그래서 문화는 석학이나 권력자, 재산가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민초들의 생활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인인척 하지만 정말 문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투철한 역사 의식 없이 좋은 문화가 탄생할 수 없다. 과거 우리는 힘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의 눈치보고 비위 맞추는데 익숙해져 자기도 모르게 노예근성이 몸에 배었다. 관존민비정신에 젖어 기죽고 살아왔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도 관이 주최하고 민은 추종하는 입장이다. 이래가지고는 문화가 발전할 수 없고 독창적이고 생명력 있는 문화가 나올 수 없다.

프랑스의 문화비평가 키·소르망은 IMF 관리체 제하의 한국의 위기는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상품도 독창성을 나타내는 차별화로 승부해야 한다. 남의 뒤만 따라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서편제라는 영화가 성공하니까 그와 유사한 동편제, 휘몰이 등 판소리 영화를 만들었다가 실패한 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원동력은 문화가 바탕이었다. 문화는 정신력을 결집시키고 국가적 에너지로 작용한다. 우리도 경제대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방문화원이 앞장서 문화가 제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문화와 예술을 관으로 부터 민으로 되돌려 주어 특성을 살려내야 한다.

문화를 시장경제원리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얼마를 투자하면 그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문화는 국민의 정신을 살찌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

류장수 편집주간 · 강민철 기자 · 지방문화원사무국

차범석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



3월 개교 앞둔 서울디지털대학교 조규향 총장

“이젠 안방에서 ‘대학 졸업장’ 따세요”

강 민 철 기자 (mckang@kccf.or.kr)

“오프 라인 대학의 명문이 서울대학교라면 온라인 대학의 명문은 서울디지털대학교다”

오는 3월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온라인 대학’으로 문을 여는 9개 교중 하나인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자신감에 찬 광고 문구다.

온라인 대학은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과 달리 캠퍼스에 나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러 학위를 딸 수 있는 이른바 ‘사이버 대학’으로 그 맨 앞줄에 동아대등 26개교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서울디지털대학교(SDU)가 자리잡고 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특히 지난해 말 총장에 문교부·교육부 차관과 국정교과서(주) 사장, 부산외국

조규향 총장 ▽



어대 총장,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등을 두루 거친 ‘교육문화통’인 조규향 박사(59)가 취임하면서 교육·문화계 및 주변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69년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의 초창기 시대를 연 조 총장은 부산외국어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원격교육시스템 개발과 BK21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열었던 귀재. 또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등을 주로 담당해 문화원과의 인연도 깊다.

3개월 남짓 개교일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조 총장은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인터넷과 벤처기업이 만들어가는 대학,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며 “앞으로 문화원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와도 상호 협력관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설립 배경은?

“지난해 3월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향학열과 인터넷 관련 기술을 잘 활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국 26개 유명대학과의 컨소시엄을 이루는 한편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개발전문기업인 (주)매경휴스닥과 대학정보화 사업의 선두주자인 (주)고려정보테크와 손 잡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과 비교해 사이버 대학인 서울디지털대학교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절반 이하로 비용이 적게 들고 총 140학점을 이수하면 기존 4년제 대학과 같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국내 굴지의 벤처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으로 산학협동을 통한 실무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출석에 대한 부담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다룰 수 있으면 자유롭게 1대1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는 문화원 가족을 비롯 대학에 다닐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조기졸업제도 도입으로 학생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이는 한편 매경휴스드와 연계한 학점인정과정 취업프로그램을 개설해 산업일선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방송통신대학교가 실시간으로 교육에 임해야하고 일정부분 출석을 해야하는 것과는 달리 서울디지털대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출석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게 대표적인 차이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면 인성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 ?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상공간에 형성된 커뮤니티는 깊은 공감대와 결속력으로 네티즌과 일반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저희는 이미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대리시험과 출석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 ?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졸업하려면 일회성이거나 단시간적인 교육이 아닌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출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리시험 역시 다양한 평가과정의 도입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서울디지털대학교의 목표는 열린교육을 선도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설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 일반인들에게도 전문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학사과정 뿐만 아니라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WTO 통상협정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에서 외국유명대학의 강의를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계유수대학과의 교류도 추진중입니다. 셋째, 전세계에 퍼져있는 우리 교포들은 물론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을 하나로 묶어 커다란 공동체를 만들고 이들에게 우리의 역사나 문화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 모집 요강〉

▲모집분야: 총 4개학부 11개 전공. 법률행정학부(법학, 경찰법학, 행정학), e-경영학부(e-biz, e-금융, e-회계), 멀티미디어학부(게임, 애니메이션, 컴퓨터응용디자인), 국제지역학부(일본지역, 중국지역) ▲지원자격: 고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전형: 최종학년도 교과성적 ▲특전: 4년제 학사학위 수여 및 대학원 진학가능, 각종 장학금 지원(정원내 5% 장애인 선발 전액 장학금 지급), 교차지원 및 대학과 복수지원 가능, 조기졸업,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능, ▲원서접수: 인터넷(www.sdu.ac.kr)상에서 1월4~19일까지, 산업체근로자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우대 특별전형도 실시 ▲합격자 발표: 1월 31일

문화 관광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제3회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대회가 지난해 11월 30일 개막해 12월 1일까지 이틀간 제주도문예회관 등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과 우근민 제주도지사,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임효택 한국대학박물관협회장, 문화원, 전국 국·공·사립 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의 집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한길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문화의 힘을 생각해야 하는 문화의 시대' 라면서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의 맛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제주도문예회관에서 11월 30일 오후2시에 시작된 이번 대회에서는 2000년도 문화기반시설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6개 분야 55곳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서울 동작문화

행사 제3회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대회

‘동작문화원’ 최우수 기관에 뽑혀 독창적인 문화프로그램 개발시금



현 태 용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사무국장



△ 문화원 분과 워크숍

원, 경북도립 상주도서관, 경기도립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부천 문화의 집, 목포시가 수상했다.

동작문화원은 컴퓨터 교육과 유료생 사후 관리, 찾아가는 문화활동, 인터넷 방송국,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운영 등 도시형 문화원 운영을 인정받아 최우수 문화원으로 뽑혔다.

또 서산문화원(도시형)과 김해문화원(도시형), 영암문화원(농어촌형), 금산문화원(농어촌형)이 우수상을 받았고 온양문화원(도시형), 목포문화원(도시형), 영광문화원(농어촌형), 남해문화원(농어촌형)은 장려상을 받았다.

상주도서관은 도서구입 바로바로 서비스,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 학교도서관 지원활동 강화, 각종 독서회와 문화회 활동 지원 등 이용자 위주의 도서관 환경 개선으로 도서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경기 도립박물관은 해외 교류 및 지역 문화 탐방 등 특별기획전 활성화, 박물관 대학, 초등학교 문화재 그리기, 문화영화 상영



△ 김길길 장관이 최우수 기관에 대해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등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고, 세종문화회관은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후 총감독제 도입, 야외계단의 공연장 활용 등 공연 여건 활성화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기관 시상식 후에는 제주도립예술단의 공연과 문화기반시설 분야별 워크숍(1)이 5개 분과별로 열려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을 했다.

12월 1일 둘째날에는 문화기반 시설에 대

한 주제별 2차 워크숍과 우수자치단체 운영사례 발표에 따른 합동 워크숍이 열렸으며, 오후에는 용두암과 한림공원 등 문화유적을 탐방했다.

이번 대회의 분야별 워크숍에서는 각 분야별 토론이 진지하게 벌어졌다. 지방문화원 분과에서는 독창적인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지방문화원의 관리운영 평가는 금년으로 3년째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총 206개 지방문화원에 설문지를 우편발송해 이중 응답한 152개 문화원에 한해 이뤄졌다.

각 지방문화원은 문화원마다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보다는 문화원이 적극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토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단순히 음악감상이나 전시관람 등 소극적인 문화향유 공간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다른 문화기관과의 중복프로그램이 많은 점이 있어 오히려 양 기관에 모두 낭비가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지방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활동, 교육프로그램

▽ 격려사를 하고 있는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공도서관 분과에서는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됐다. 박물관·미술관 분과는 소장품 보존전문가가 있는 박물관이 조사대상의 18.5%에 불과했으며 3분의1 정도가 소장품 구입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은 1억원 미만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이러한 예산에서 자체수입금이나 외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3%에 불과했다. 또한 박물관 정책에서 최대 이슈는 학예사 제도로 근본적으로 다른 박물관 진흥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됐다.

문예회관 분과는 평가 결과 상위그룹에 속한 대부분의 기관의 운영책임자들이 개방형 임용을 통해 경영책임을 맡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문예회관 책임자 임용시 전문가들의 임용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간에 걸쳐 문예회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지원을 부여하는 한편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 유치와 차별화된 기획공연, 관객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문화의 집 분과는 문화의 집 설립목적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료 구입이나 기증 확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서로간의 교류확대와 공동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 분과는 재정 및 전문인력의 부족이 지자체 문화행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문화향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가, 서비스 정신에 투철한 문화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가 지자체 문화행정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지적이었다. **문**

삼국사기 50권 편찬한

김 부 식

뇌천 김부식(雷川 金富軾 : 1075~1151). 김부식은 무열왕의 후손으로 고려 문종 29년(1075)에 경주에서 태어나 의종 5년(1151)에 세상을 떠났다. 예종·인종의 학문 숭상기에 중심적 학자로 유학의 학문 발전에 기여한 유학자였으며, 고문체(古文體) 문장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문학자였고, 이자겸 난·요청의 난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왕조의 안정에 기여한 정치가였다. 특히 그는 고대 역사학을 극복하며 중세의 역사관을 정립한 역사가였다.

그는 경주 김씨로 증조 김위영은 경주의 향리인 주장(州長)이었고, 아버지 김근(金覲)은 향리계층에서 중앙관료로 진출해 5품의 좌간의 대부에 올랐다. 김부식은 1096년(숙종 원년)에 과거에 합격했고, 안서대호부 사록참군사에 초임되었다. 1116년(예종 11) 7월 송나라로 사신행렬에 끼어 문한관으로 따라갔다가 이듬해 3월에 귀국하면서 사마광의 '자치통감(資治通鑑)' 한 질을 구해와 고려의 역사학이 정치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역사의식을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학문 증흥정책을 쓴 예종과 인종에게 청연각에서 '서경'·'주역'을 강했고, 왕의 외조인 이자겸이 왕에게 칭신(稱臣)하지 않도록 하자는 건의가 있자 이를 예법에 어긋난다고 중국의 예를 들어 조목조목 반대했다.

왕위를 노리던 이자겸의 난이 진압된 후에는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승진되어 국정을 논하는 재추의 중심 관료가 되었고, 동덕찬화공신에 책봉되었다. 인종 12년 요청은 금국정벌론과 청제건원을 주장하면서 서경에서 인종 13년(1135)에 반란을 일으키자 김부식은 중군 원수에 임명되어 그 진

압책임을 맡아 이듬해 2월에 완전 진압했다. 이로 인해 김부식은 수충정난정국공신에 봉하여지고 검교태보 수태위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 감수 국사 겸 태자대보로 승진됐으며, 판예부사(判禮部事)·검교태사·집현전대학사·태자태사를 겸임했다.

인종 18년(1140)에는 국왕에게 시폐 10조를 올렸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국왕은 사면령을 반포하자 김부식은 정년 18개월을 넘겨두고 관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김부식은 이후 인종의 도움을 받아 신진관료 8명과 함께 삼국사기 50권을 편찬해 1145년에 왕에게 이를 바쳤다. 삼국사기는 한국의 중세의 역사관을 정립한 역사서로 정치적 교훈서로서의 역사학, 유교적 도덕사관, 문헌 중심주의 역사학, 합리적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인종 2년에 고려를 방문하였던 송나라 서긍은 '고려도경'에서 김부식을 고급의 학문에 박식한 고려의 대표적 학자로 소개하였

으며, 의종 5년에 세상을 떠나자 김부식은 인종의 묘정에 수태부 중서령 낙랑후 문렬공으로 배향되었다. 



‘출향 및 유명작가와의 독서생활화 만남’

2년에 걸쳐 1백70회 열려... 오탁번 · 신길자 · 신경림 등 강연

전국문화원연합회가 99년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 11월말까지 문화소외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향 및 유명작가와의 독서생활화 만남’은 독서인구저변확대와 지역주민의 문화감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중·고생의 책가방 없는 날에 맞춰 열린 이 행사는 각 지방문화원 주관아래 시인 오탁번(시인의 꿈과 길 · 원주문화원) · 시인 신경림(길 · 충주문화원) · 소설가 한승원(아제아제바라아제 · 곡성문화원) · 소설가 문순태(고향으로 가는 길 · 담양문화원) · 시인 신달자(물위를 걷는 여자 · 진주문화원)씨등 유명 작가가 직접 해당 학교를 찾아가 작품소개와 독서지도 · 팬사인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지방문화원의 주관 아래 99년 1백회에 이어 지난해 70회등 총 1백70회가 열렸다. 월간 ‘우리문화’는 이중 원주문화원에서 강연한 오탁번씨의 詩人의 꿈과 길’을 골라 싣는다.(편집자 주)

詩人의 꿈과 길

「순은이 빛나는 이 아침에」(1967 ·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쓴 것은 대학 3학년 초겨울이었다. 나는 그 당시 소년 시절부터 써온 시에 대하여 절망감 비슷한 생각에 폭 빠져 있었다. 대학 1학년에 신춘문예에 응모한 작품이 최종심까지 올라갔다가 낙선하고 난 뒤 나는 내심으로 이미 기성 시인의 수준에 올라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건만 이듬해에 응모한 작품들은 당선은 커녕 최종심에도 오르지 못한 채 그야말로 공중에서 산화하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그때 절망감과 분노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다.

- 이 시대가 아직 나의 시를 알아 볼 수준이 안된 모양이니, 시 하나에만 목매달지 말고 소설 쪽으로 정진해 나가자.

그래서 3학년 때부터 나는 죽자사자 하는 심정으로 소설 쪽으로 나를 고문하듯이 몰아붙였다. 시를 버리기로 했다. 학교 신문의 기자 노릇하랴 영문과 강의 들으랴 또 여학생 뒤통무니 쫓아다니랴 그야말로 ‘공사다망’했던 시기였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각 신춘문예 모집 광고가 날 때쯤에 나는 문득 생각했다.

- 어린 소년 시절 치악산이 바라다 보이는 원주중학교 까까머리 학생 때



오탁번

시인 · 고려대 교수

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시를 버릴 수는 없다!
시를 포기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다!

1년 동안 버려두었던 시 습작 노트를 다시 꺼내
어 시를 써 나갔다. 물론 단편 소설 다섯 편은 이미
'완벽한' 상태로 끝낸 후였다. 나의 순수한 사랑을
외면하고 떠난 연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듯 나는
시를 쓰기로 했다. W. B. Yeats와 Dylan Thomas
의 시를 즐겨 읽던 나는 소설이 주는 늑과도 같은
끈적끈적한 서사 구조의 매력에도 흠뻑 빠져 있었
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뒤에 생각해 보니까 1
년 동안 시를 버리기로 걱정하고 있던 기간이야말로
내가 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시간이었는지
도 몰랐다. 나의 시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
로 바라볼 수 있는 미적 시간과 공간(aesthetic
time and space)이었던 셈이다.

〈純銀이 빛나는 이 아침에〉를 쓸 당시 나는 홍콩
앞 청랑리동에 있는 고종형의 집에 기숙하고 있었
는데 연립으로 지은 그 집의 이층은 온돌이 없고 다
다미방이어서 겨울이면 연탄난로를 놓고 살았다.
친구들이 오면 난로 위에 오징어를 구워서 소주를
마시면서 끝간데 없이 이어져 간 문학청년의 몽상
에 젖으며 약속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자학의 시
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대학을 끝까지 다니고 졸업
을 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궁핍에 시달리면서도 그
럴수록 현실적인 세속의 관계는 더 철저하게 무시
하게 되는 부정과 일탈의 세계관이 벼랑끝으로 나
를 몰아가고 있었지만, 문학창작 쪽으로 내 목숨을
다 연소시키기로 걱정하고 있던 비장한 시기였다.

눈을 뚫으면 귀가 맑게 트인다. / 나무가지마다 純銀의
손끝으로 빛나는 / 눈 내린 숲길에 멈추어선 / 겨울 아침
의 行人들.

原始林이 매몰될 때 땅이 꺼지는 소리, / 千年동안 땅
에 묻혀 / 탄탄한 石炭으로 변모하는 소리, / 캄캄한 時間
바깥에 숨어 있다가 / 發掘되어 건강한 炭夫의 손으로 /

貨車에 던져지는, / 原始林 아아 原始林 / 그 아득한 世界
의 運搬소리.

이층房 스토브 안에서 꽃불 일구며 타던 / 탄탄하고 強
硬한 石炭의 發言. / 연통을 빠져나간 뜨거운 기운은 / 겨
울 저녁의 / 無邊한 世界끝으로 불리어 가 / 은빛 날개의
작은 새, / 작디 작은 새가 되어 / 나무가지 위에 내려왔
아 / 해뜰 무렵에 눈을 뜬다. / 눈을 뜬다. / 純白의 알에
서 나온 새가 그 첫 번째 / 눈을 뜨듯.

구두끈을 매는 時間만큼 잠시 / 멈추어 선다. / 行人들
의 귀는 점점 맑아지고 / 지난 밤에 들리던 소리에 / 생각
이 미쳐 / 앞자리에 앉은 係長이름도 / 버스 스톱도 急行
번호도 / 잊어버릴 때, 잊어버릴 때 / 分配된 해를 純銀의
씨앗처럼 주둥이 주둥이에 물고 / 일제히 날아오르는 새
들의 날개짓.

지난밤에 들리던 石炭의 變成소리와 / 아침의 숲의 관
련 속에 / 비로소 눈을 뜬 새들이 날아오르는 / 조용한 動
작가운데 / 行人들은 저마다 불씨를 분다. / 불씨, 불씨
를 분다.

行人들의 純粹는 눈 내린 숲속으로 빨려 가고 / 숲의
純粹는 行人에게로 오는 / 移轉의 순간, / 다 잊어버릴
때, 다만 기다려질 때 / 아득한 世界가 運搬되는 / 은빛
새들의 무수한 飛翔가운데 / 겨울 아침으로 밝아가는 불
씨를 분다.

- 「純銀이 빛나는 이 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눈이 하얗게 내렸다.

그 때 문득 지난밤의 연탄난로의 온기와 눈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상상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꼬
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했다. 〈원시림 - 석
탄 - 수증기 - 강설 - 아침 햇살〉로 이어지는 맥락은
첫눈이 내린 겨울 아침의 풍경 묘사 속으로 이어지
게 되었다. 〈순백의 알에서 나온 새가 그 첫 번째 /
눈을 뜨듯〉에 나오는 이미지를 나는 늘 소중하게 여
겼다. 알에서 갓나온 어린새의 눈빛처럼 세계를 바

라보는 최초의 시인이야말로 내가 꿈꾸는 시적 이상의 포인트였다.

신춘문예의 심사 위원은 조지훈, 박남수, 김종길 시인이었는데 그들은 심사평에서 ‘눈부실 정도로 참신한 작품’이라는 칭찬을 했지만 〈시〉와 한동안 거리를 두고 스스로 시를 망각하고 있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시의 상투성에서 해방되어 나의 시선으로 세계와 사물을 바라보는 독심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시를 ‘눈치없이’ 쓰게 되었는지도 몰랐다.

〈눈 내린 숲길에 멈추어/ 멈추어 선/ 겨울 아침의 行人들〉이라는 시 속의 등장 인물은 그 당시 한창 소설속에 빠져들었던 나의 서사적 배려이기도 했지만,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묘한 시적 설정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원문학상을 받은 다음과 같은 시의 제목이기도 했던 것이다. 원주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학교를 자퇴하다시피 하고 서울로 올라와 내 운명과 마주 보면서 나를 혹독하게 추구하면서 쓴 작품이었다. 지금 다시 꺼내어 읽어보니, 고3 때 쓴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나는 정말이지 〈나〉가 무서울 때가 있다. 그가 지닌 절망의 깊이 때문에!

1

돌층계를 밟고 내려가듯, 나는 도시의 중심부를 향하여 깊숙히 걸어가고 있다. / 나의 청각을 울리는 970 KC 중앙 방송, 5개년 경제 계획을 방송하고 있는 / 담뱃재 같은 오후가 권태롭다. / 나는 걷고 있다. / 하룻, 두울 나는 상업은행의 흑빛 도어를 열고 / 후, 후 웃어보고 싶다. / 아침마다 우리집을 지나는 생선장수가 내 어깨를 친다. / 그는 씩 웃고 외상값을 달라고 비굴해진다. / 나는 우리집 兄嫂처럼 그렇게 눈웃음한다. / 종로 4가에서 원남동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 나는 추상화같이 흔들리는 거리의 풍경 속에..... 엑스트라.

2

나는 수학 여행을 온 시골학생 같다. / 나는 걸어가고 있다. / 나의 의식은 내 1m 뒤에서 나를 신경질적으로 만들며 따라온다. / 팔목 시계 안에서 초침이 활짝거린다. / 나는 두개골 속에 먼지처럼 이는 / 현기증에 취하면서 걷고 있다. / 나는, 아무 의사도 없이 진행형을 만드는 Be동사 같다. / 창경원에 가서 木馬를 타고 나는 / 어디 한정없이 혼자서 가고 싶다. / 자꾸 가다가 물어 보고 싶다.

「걸어가는 사람」, 원주고 3, 오락번

조속하다면 조속하달 수 있는 나의 이와 같은 시적 본능이 그나마 196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하여 결실을 맺은 것은 어쩌면 내 인생의 지침을 그 대로 증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 때에 함께 응모했던 소설은 모조리 낙선하고, 나는 드디어 〈詩人〉으로 탄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인으로 태어나서 그 길만을 곧바로 걸어가기에는 내 몽상과 절망의 시공이 광활했음인가. 나는 뒤이어 소설가가 되었고 또 대학원생이 되어 한국현대 문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 사라졌습니다.〉라는 만해의 절구도 있지만, 〈시〉를 버리려고 했던 나의 삶의 궤적을 〈純銀이 빛나는 이 아침에〉가 돌려 놓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시를 버리고 벗어나는 나를 제자리에 뱀다 내동댕이치고 만 셈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는 나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로 운명파도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시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한 순간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 공연한 엄살만은 아니라는 것은 〈걸어가는 사람〉과 〈純銀이 빛나는 이 아침에〉를 읽을 때마다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시단에 단순히 등장하기 위해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내 운명과 혹독하게 대면하기 위하여 더 이상 가감할 수 없는 참회록을 쓴 셈이다. 

역사 상흔 깊은 창녕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원

유적지 탐방을 앞두고 때아닌 늦가을 비바람은 며칠이나 계속내려 사적 순례의 목적이지 관광의 목적은 아닌 것 만큼 자랑스런 우리 조상의 문화 유산과 유적지를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하고 배우고 느껴야 할 터인데 일기 관계상 버스에 좌석이 남으면 어쩌나 이것 저것 신경을 쓰느라고 밤잠을 이룰수 없었다.

떠나는 날은 우리문화 가족이 축복이 있어 가을날씨를 되찾아 비에 씻은 듯 다소 회소해 보였지만 보였지만 빨간 단풍은 무척 아름다워 이 가을은 이 아름다운 붉은 단풍이 없었으면 가을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마냥 가슴 설레게 하는 부품으로 우리는 창녕 유적지 탐방이 시작되었다.

창녕은 대구 남부쪽 시가를 벗어나 제일 처음 마주치는 곳으로 경남 남북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며 거기에다 낙동강까지 끼고 강하류에 턱하니 버티고 있어 교역이 성하지 않을 방도가 없다.

가야시대의 문화유물이 소장되어 있는 곳으로 조상의 얼과 발자취 애국 지사가 많이 탄생된 유서깊은 고장이라 할 수 있다.

첫번째 답사지인 박물관에 도착하니 우리를 안내할 창녕문화원 하영면 사무국장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왕산의 서쪽 기슭에 위치하며 교동 고분군과 인접하고 있었다. 평화스럽게 누운 능과 함께 박물관 건물은 깨끗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두 개의 전시실과 시청각실을 갖추고 가야시대의 유물 166점 토기류 85점 바구류 42점 장신구류 50점 무구류 53점들이 주를 이루고 전시되어 있다.

통일신라의 고분에서 발굴된 황옥 목걸이가 너무나 정교하면서 화려해 현대 목걸이 모양새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조상들의 문화수준을 엿보게 하는 물건들이었다.

특히 전시관홀에는 가야고분의 축소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형관(디오라마)이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가야시대 고분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창녕문화원 사무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다음은 교동 송현



안 정 자
마산문화원 부원장

고분군으로 발길을 옮겼다.

고분군은 1918년에서 1919년 사이 일본인에 의해 그 일부가 패굴 조사되어 유물은 대부분 일본으로 옮겨가고 지금은 일부만 국내에 남아있다고 한다.

유적지의 곳곳마다 일본인의 잔인한 태도에 다시 분노를 느꼈다.

창녕의 대성은 하씨 성씨 노씨라고 하니 삼성을 가진 우리 회원들이 족보를 따진다고 길목이 분주했다. 골목을 들어가니 민속자료 제10호 조선시대 영조 1760년 초가로 하씨가 수대를 살아온 집이다.

마루판자는 윗면이 평면이고 아랫면은 원뿔이고 지붕은 쇠풀로 덮였으며 못은 사용하지 않았다. 건너방 대청 안방 부엌의 순으로 집은 아직도 몇대를 이어 살아도 될 정도로 튼튼하고 정교했다.

비가 온뒤라 진마당을 밟으니 나 어릴 때 우리 시골집 생각에 더욱 정감을 느꼈다.

꼭 배우고 알아야 할 유적지를 지적에 두고 이제 사 살펴보니 내가 어찌 문화사업에 앞장설 수 있을 까하는 부끄러움과 함께 무거운 발걸음으로 수정리 동삼층석탑으로 향했다.

통일신라시대 이 탑은 원래 노변에 있었고 민가의 담뿔으로 하층 기단의 일부가 들어가 있었으나 1965년 주위에 있던 민가들을 철거하면서 청동향로가 발견되어 불교 문화가 꽃을 피운 장소로 알려졌다.

경남에서 제일 오래된 수정리 동삼층 석탑이라고 한다. 직선미의 정교한 솜씨의 한부분은 싸우다

깨어 졌다는 설이 있듯 한부분에 상처가 나 있었다.

다음은 신라진흥왕 척경비(국보 33호)로 원래 화왕산 기슭에 있었던 것이 소풍갔던 학생에게 발견되어 알려졌는데 학계에 보고된 것은 1914년 2월 7일 창녕초등학교 일본인 교장 하시모토 요시쿠라(橋本良藏)에 의해서 었다.

그후 1924년 지금의 만옥정 공원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만옥정 공원은 한국 마사회에서 경마 수입금을 지원받아 창녕군민의 공원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어제만 해도 비바람이 불던 날씨가 가을의 따뜻한 햇살을 등에 지고 낙엽지는 만옥정 공원에 앉아 한담을 나누다 위치 관계상 석빙고를 답사하고 점심을 먹자는 안내자의 말에 시장끼가 돌았다.

석빙고는 보물 310호 조선시대에 준수한 빙고다. 외부의 모양은 마치 거대한 고분처럼 보이고 뒤에는 개천(옛날에는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다)에 직각으로 남북으로 길게 구축된 모습이다. 병실의

▽ 마산문화원 회원들이 진흥왕 척경비를 답사하고 있다.



입구는 남쪽에 장대석을 옆으로 지르며 쌓아 올라 천정을 구성하였으며 외부로 통하는 환기공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를 쳐다보니 넓이와 입구 구조 양식은 석빙고의 전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인솔자의 안내로 식당에 와서 불고기 정식을 맛있게 먹고 버스를 다시 타고 영산교 만년교로 향했다. 보물 564호, 조선시대 정조 4년(1780) 원님이 다리를 고쳐 주었다고 하여 원다리라고 불려지게 됐다.

홍해 석축원은 상승각도가 흙으로 되어 있고 양안상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조각다리를 건너서 계단을 올라가니 영산면 동리산 정상이었다. 뒤쪽은 부곡온천장이며 우뚝 솟은 산봉우리, 민가 그리고 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경치가 좋은 장소며 3.1 독립운동 만세를 불러 일본인에 항거했던 애국심을 찬양하고 그 뜻을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건립된 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 밑에는 6.25 당시 북괴군과 막바지 대공세를 펴던 곳으로 산화한 전몰장병들 비앞에 우리는 두손모아 빌면서 마지막으로 망우정을 향했다.

곽재우 장군이 3년 동안 귀양살이를 마치고 만년을 시를 읊고 보낸곳으로 이 정자는 팔작 지붕에 단층 기와집으로 망우정 및 여현정 중수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앞에는 낙동강물이 흐르고 있고 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본래 고향은 의령인데 이곳에 와서 돌아가셨다 한다.

곽재우 장군이 죽을 때 벽진 이씨에게 물려주었고 6.25때 소실된 것을 1972년 벽진 이씨 문중에서 다시 세웠으며 내부는 현대 합판들이 보수되어 있었다.

곽재우 장군은 자기의 무덤을 크게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훌륭한 장군이였다.

창녕의 유적지를 다 답사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뒤로 돌아섰다. 수천년의 비바람에도 찬란한 꽃을 피울 자랑스러운 역사의 소장지, 통일시대의 흔적이 남을 창녕!

오박골 골짜기에 옛 상무사를 찾는 발걸음이 많기를...



◁ 망우정



납일과 세시풍습



박 후 식 |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문위원

음력 12월을 섣달이라고 한다. 섣달을 시옷 달이라고도 불렀는데 섣달이란 뜻이다. 섣달의 마지막날을 제석 또는 제야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이날이 되면 궁중에서 연중방포라 하여 대포를 쏘았으며 지금은 보신각에서 3구천에 울려 퍼지는 제야의 종을 친다. (현재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 섣달 그믐날 밤에 제야의 종을 울린다)

또 개인간의 외상이나 빛이 있을 때 그 해 그믐날까지 청산하는게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새해 보름까지는 빗독축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그믐날은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해 설맞이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납일 풍습

납일을 납향이라고도 하는데 동짓날부터 세번째 미일(未日)을 납일이라고 했고, 새해를 맞아 구랍이라고 칭하며 지난해 섣달을 뜻하는 것이다.

납일은 중국 고대국가에서부터 시작됐다. 하(夏)나라에서는 가평(嘉平), 은(殷)나라에서는 청사(淸蛇), 주(周)나라에서는 대사(大蛇)라 하였다. 그 후에 한(漢)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납일이라고 했다.

납일에 해당하는 날에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 한(漢)나라에서는 술일(戌日)을 납일로 정하였으며 진(晉)나라에서는 축일(丑日)로 하였고, 당(唐)나라에서는 진일(辰日)로, 송(宋)나라에서는 술일(戌日)을 납일로 정하였다.

이 때 궁중에서는 중요 약제를 만들어 임금께 진상하기도 하였는데 납일 때에 만든 약을 보면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 소합원(蘇合元), 안신원(安神元) 등이었다. 이들 약제의 효능을 보면 우황청심원은 정신장애에 소합원은 토사곽란에 좋았으며 안신원은 고열을 치료하는데에 애용하였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상시에 사용하는 상비약인 셈이다.

특히 우황청심원은 그 약효가 유명하여 신단(神丹)이라는 칭호까지 들었고 멀리 중국에가지 전해진 명약이었다.

또 납일에 잡은 고기는 모두가 사람에게 좋다고 한다. 특히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에게는 참새고기를 으뜸으로 찼다. 어린이들에게 참새고기를 먹이면 천연두가 깨끗해진다고 하여 참새를 많이 잡았다.

또 납일에 내리는 눈(雪)을 받아서 눈을 씻으면 안질이 낫는다고 했다. 그리고 납일에 오는 눈을 받아 병에 담아두었다가 여름에 마시면 더위를 이기고 종기에 바르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납일에 눈이 내리면 각 가정에서는 장독을 열어 눈이 간 장독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장맛이 변하지 않을 뿐더러 구데기도 안생긴다고 하였다.

제야 풍습

섣달 그믐날은 어느 때보다 바쁜 날이다. 남자들은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새

해를 맞을 준비를 한다. 특히 집주변의 외양간을 치우고 거름을 퍼내어 설맞이 준비를 하는데 이는 묵은 해의 잡귀와 액은 모두 물리가고 신성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려는 마음의 준비이다. 그리고 마당을 깨끗이 쓸고 그 쓰레기를 태우는데 이는 잡귀를 불사르는 풍습의 하나로서 이것은 신앙적 속설이기도 하다.

또 선달그믐날은 집안 사당에 절을 하고 집안 어른을 찾아 뵙고 세찬(새해선물)을 전한 후 절을 올리는데 이것을 묵은 세배라고 하였다. 묵은 세배는 지난 한 해 무사히 지내게된 것을 감사하는 인사인 것이다. 묵은 세배는 궁중에서도 행하여져 만조백관들이 임금께 묵은 세배를 올리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다.

여자들은 이날 설날 차례에 올릴 음식을 만들고 설빔을 마련하느라 밤늦게까지 바쁘다.

선달그믐날 밤에는 집안 곳곳, 장독대, 축사(외양간) 등 곳곳에 불을 밝혀 놓고 잠을 자지 않았다. 이것을 세수(歲守)라고 했다. 집안에 불을 밝혀 놓는 것은 잡귀의 출입을 막자고 하는 것이며 잠을 안자는것은 선달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여진다고 하는 속설이 있기때문이었다.

식구들은 잠을 안자기 위해 놀이를 하거나 이야기책을 읽기도 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옛날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그래도 자는 사람이 있으면 눈썹에 밀가루를 뿌려 정말 눈썹이 흰것처럼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제야에 빙등(氷燈)을 설치하고 집안 어른이나 지난해 신세진 집에 선물(세찬)을 보내며 여러가지 놀이와 의례를 행하였다.

선달그믐날 고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었다.

또 지방에 나가 있는 관리들은 조정이나 집안 친척들에게 그 지방의 특산물을 세찬으로 보내는 사례가 많았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는 온집안을 청결히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 복을 기원하는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었다.

복조리

선달그믐날 자정 이후부터 정월 초하룻날 아침 사이에 사서 걸어두는 조리를 복조리하고 불렀다.

선달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조리장사들은 복조리를 사라고 외치며 골목을 누비고 돌아다닌다. 각 가정에서는 밖에 나가 1년동안 쓸만큼 조리를 사는데 어떤 집은

식구 수대로 사서 가족의 머리맡에 한개씩 놓아 두기도 한다. 식구수가 작은 집은 한결레를 사서 '人'자 형으로 묶은 뒤 방문이 마주 보이는 벽이나 부엌의 물동이가 놓인 벽뒤 기둥에 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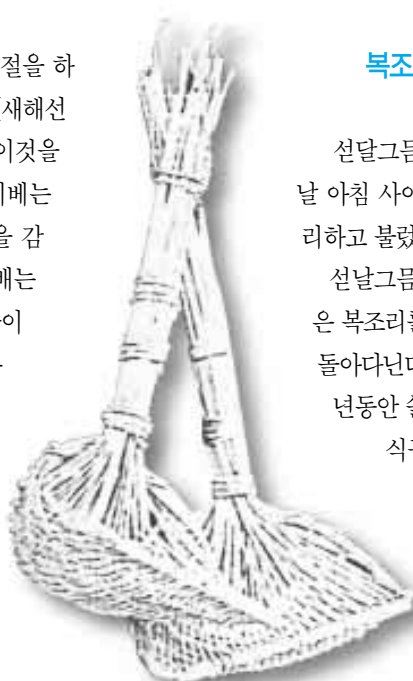
둔다.

선달그믐날밤 복조리를 사지 못한 집은 설날 아침에 사거나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산다.

복조리안에는 돈이나 엿 등을 넣어 두어 1년동안의 원화소복을 기구하는 정성의 정표로 삼기도 하였다.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이므로 그 해의 복을 조리과 같이 굽어 모아 건진다는 뜻에서 이 풍습이 생긴 듯 하다.

복조리를 문위 벽에 걸어 벽사진경하는 풍습은 조리의 무수한 눈이 사람의 눈과 같이 광명을 상징하는 데서 온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향토사 CD롬’ 무료로 드립니다

편집부

월간 ‘우리문화’는 최근 전국문화원연합회가 발간해 인기를 모은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수상 논문집’ CD롬을 선착순에 따라 무료로 드립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지난 86년(1회)부터 99년(14회)까지 실시한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수상 논문 94편이 수록된 이 CD롬은 한눈에 향토사 연구 실적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의를 위해 목차별 검색 기능등을 넣어 일반인과 향토사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D롬을 받으려면 물음에 대한 응답을 적어 메일로 보내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향토사에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응모방법

물음 : 한국 문화를 가장 잘 상징하는 세가지를 말하면?

예) 한복, 울릉도, 한글, 도자기, 김치, 태극기, 불고기, 아리랑
불국사, 한강, 설굴암, 고추장,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한라산, 제주도, 기타...

- 응모기간 : 1월 1~24일까지
- 응모방법 : 전화 (02-704-2311), 메일(mckang@kccf.or.kr)
- ※ 응모하실 땐 주소와 함께 우편번호를 꼭 알려주세요
- 경품 : CD롬 1백매 (선착순 1인 1매)
- 당첨자 발표 : 2월 초순경 전국문화원연합회 사이트에 공지(www.kccf.or.kr)
- 발송시기 : 2월 초순경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1986~1999) 수상논문 CD롬 목록

1회(1986년)

△ 百濟畫像傳 新考 (이석호 前부여문화원장) △ 伽

耶史考 (김상조 진주문화원 고문) △ 節婦 香娘의 사실 (윤영옥 영남대학교수) △ 예산실학의 신고 (이향복 前예산문화원장) △ 거문도연구 (곽영보 향토사가) △ 고창읍성 축성년대 糾明에 관한 조사연구 (이기화 前고창문화원장) △ 축석루중삼장사시의

연구 (이창호 前진주문화원장) △ 壬亂黔澗日記 (황영목 향토사가) △ 冶爐鐵山과 大伽耶 (김도운 가야문화연구실 대표)

2회(1987년)

△ 오음산 국소제 윤범하 (前안성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 제왕운기와 이승휴의 문화유적 (김시래 前동해문화원장) △ 가야의 본고장 김해 (이병태 前김해문화원장) △ 幽谷驛道の 위치와 役割 (신후식 경북도청 공무원) △ 위례성에 대한 연구 (오세창 前천안향토사연구소장) △ 지명유래의 발굴과 보전 담양, 승주, 완도군지등의 편찬경험을 중심으로 (신병우 향토사가)

3회(1988년)

△ 乾鳳寺 泗溟堂碑 調査研究 (함병철 향토사가) △ 石柱城 戰跡地에 대한 소고 (문승이 前구례문화원장) △ 신라궁성에 대한 연구 (김원주 향토사가) △ 월월이청청에 대한 연구 (서두석 前영덕문화원장) △ 百濟居列城考 (김범수 진주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 △ 충남향토사정립을위한 사료연구 (최문희 향토사가)

4회(1989년)

△ 해남의 고대지명 (황도훈 해남문화원장) △ 周留城 考 (박성홍 향토사가) △ 虎食葬 김강산 (태백문화원 사무국장) △ 烏山の 地名 考 (이제재 수원문화사연구소장) △ 全瑋準의 高敞胎生說에 관한 究明 (이기화 前고창문화원장)

5회(1990년)

△ 重齋 金永植先生과 『沙亭日記』 (최재우 향토사가) △ 수원지방의 청소년운동 (이제재 수원문화사연구소장) △ 保寧 石工業의 기원과 발전 (황의호 교사) △ 양양의 선사유적 (고경재 양양문화원장)

△ 김삿갓의 유적에 대한 고찰 (박영국 향토사가)

6회(1991년)

△ 정부인 안동장씨의 생애와 偉業 (김구현 향토사가) △ 대천보령지역 벼루공업의 기원과 발전과정 (황의호 교사) △ 한국여성교육의 기수 任淑宰 여사의 생애와 교육적인 의의 (신상구 교사) △ 정선, 정선아라리 (고종현 향토사가) △ 하회 선유줄불놀이 의 재현 (김재구 향토사가)

7회(1992년)

△ 百濟 河南慰禮城址에 대한 연구 - 自然 · 經濟 · 遺物을 중심으로 - (한종섭 하남시청 공무원) △ 蒙古侵入과 處仁城 大捷 소고 (이인녕 향토사가) △ 山康 卞榮晩의 생애와 국학관 (최현수 부천향토사연구소장) △ 女流文人 姜靜一堂 研究 (김임평 前성남문화원 사무국장) △ 口傳하는 慶山の 三聖賢과 그 행적에 대한 현장적 고찰 - 慶山 鄉民들의 口傳說話를 중심으로 - (김종국 경산시 압량면장)

8회(1993년)

△ 書畫家 又雲 徐廷珉 研究 (김창고 교사) △ 香村埋香碑에 대한 小考 (문옥상 향토사가) △ 戰跡地로 통해본 漆川梁海戰 (김일룡 통영지역사관 관장) △ 大藏經南海分司臺藏都監 (정의연 남해문화원 사무국장) △ 聞慶地域의 山城- 鷄立嶺路와 鳥嶺路를 中心으로 - (신동철 문경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

9회(1994년)

△ 漢江流域에서의 三國史의 諸問題 (김민수 향토사가) △ 地名에서 찾아낸 于勒의 痕迹-정정골에서 彈琴臺까지- (김도운 가야문화연구실 대표) △ 咸安의 地名小考 (김영일 향토사가) △ 南原地域 山城의 考察 (이석홍 남원문화원 사무국장) △ 自庵 金

紇의 流配地 南海에 關한 考察 (정의연 남해문화원 사무국장)

10회(1995년)

△ 春川の 樓亭과 文化에 關한 一考察 (오강원 대학강사) △ 漢水의 概念과 高句麗 南平壤의 考察 (김민수 향토사가) △ 해남지역의 미륵신앙 (彌勒信仰) 연구 - 석불 (石佛)과 전설 (傳說)을 중심으로 - (정운섭 해남군청 근무, 이병삼 교사) △ 壬辰亂 赤珍浦 海戰 (김일룡 통영시역사관 관장) △ 햇대 (日竿)考 (김강산 태백문화원 사무국장)

11회(1996년)

△ 朝鮮時代 燕山君 禁標碑 研究-高陽市 大慈洞 禁標碑를 中心으로- (정동일 고양시청 전문직 연구위원) △ 단양·영춘지역의 지명유래와 전설에 관한 연구 (윤수경 향토사가) △ 寧越地方의 3·1萬歲運動에 關한 研究-주천 금마리 만세운동을 중심으로- (엄홍용 교사) △ 江陵地域 地名由來의 類型 및 形態 考察 (김기설 향토사가) △ 咸平人 著作의 詩歌 考察 (이현석 함평문화원 부원장) △ 江原道內 指定 文化財級 佛教文化財 調査報告-緊急保存을 要하는 佛教文化財 調査報告를 檢하여- (홍성의 향토사가)

12회(1997년)

△ 한국의 탐신앙에 관한 연구 (강성복 금산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위원) △ 李舜臣 將軍의 露梁大捷 (문부경 향토사가) △ 學士公 李臯의 生涯와 墓域考 (이제재 수원문화사연구소장) △ 新羅王陵의 傳承過程 研究 (이근직 경주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위원) △ 橫城地方에 口傳되는 傳來童謠 研究 (정재영 횡성문화원 이사) △ 春川 淸平寺 文殊院記 復元을 위한 基礎的 研究 (홍성의 향토사가) △ 내포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 (이인화 교사) △ 忠正公 朴彭年 世居地 研究 (박종관 향토사

가) △ 保寧縣 治所의 移動에 關하여 (황의호 교사)

13회(1998년)

△ 江原地域 胎室에 關한 研究-全國 胎室 調査를 檢하여- (홍성의 향토사가) △ 星山別曲의 論爭攷 (임남형 향토사가) △ 낙동강 水運史에 대한 연구 (박호만 향토사가) △ 합천지역의 동학농민운동 연구 (유승광 교사) △ 茅亭의 기능과 변화양상 (안성훈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재학) △ 홍천의 고인돌 유적지 조사연구 (김관원 홍천문화원장) △ 의정부시 지명유래의 재검토 (홍정덕 교사) △ 남포현치소의 이동에 관한 연구 (황의천 교사) △ 매죽현 성삼문 연구 (박종관 향토사가) △ 임진합천의병활동 (정기철 합천임란기념사업회 이사)

14회(1999년)

△ 고성 삼일포 매항비와 침향 (정향교 강릉시립박물관 학예실장) △ 기지시줄다리기의 재조명 (이인화 교사) △ 당나라군의 百濟 공격루트 (김중규 군산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위원) △ 聞慶 旗幟拜 調査報告 (안태현 문경새재박물관 학예연구사) △ [龍仁 明倫學校日記]에 關하여 (정광순 중량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 △ 漣川地域義兵에 關한 研究 (1907년 8월 ~ 1910년 10월 24일간 중심으로) (이병주 연천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회 상임위원) △ 충남 홍성지역의 민간신앙 조사 (김정현 교사) △ 橫城地方의 勞動謠 研究 (정재영 횡성문화원 이사) △ 陰城郡 마을共同體信仰 山神祭 (정기범 향토사가) △ 安羅國史 小考 (김영일 향토사가) △ 彌勒설화 연구 (김용국 향토사가) △ 瑞山地方의 百濟歷史 (이은우 서산향토사연구회장) △ 富川地域의 山神祭 (소진섭 부천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위원) **문**

전국문화원연합회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해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아차산에서의 고대사의 제문제'로 대상을 수상한 김민수 광진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을 비롯한 15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관런기사 29면>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출판 기념회 및 중구문예·중구문화 출간 기념회

▷일시 : 12월 21일

▷장소 : 중구문화원 1층

제4회 광진음악제

▷일시 : 11월 30일

▷장소 : 리틀엔젤스 회관

동대문문화원

제2회 초등학생민요부르기 대회

동대문문화원은 12월 12일 오후 4시 동대문구문화회관 2층강당에서 250여명의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내 초등학교 학생 20개팀 총 52명을 대상으로 '제2회 초등학생 민요부르기대회'를 개최했다.

제1회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김희영양(청량초4)과 경기

민요합창단 등의 찬조출연을 포함 총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장기타령'을 단체로 불렀던 전동초등학교 민요합창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곰보타령'을 부른 김인기군(명치초5)과 '장기타령'을 부른 정해림양(배봉초1)에게 돌아갔다. 동대문문화원에서는 작년부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국악의 참맛을 일깨워주고 국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말 초등학생 민요부르기대회를 열고 있다.



도봉문화원

2000 도봉사진 공모 작품 전시회

▷일시 : 12월 8일

▷장소 : 도봉구민회관 전시실

동작문화원

동작문화원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동작문화원 문화대학 수강생 작품 설명회

▷일시 : 12월 6일

▷장소 :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

송파문화원

부여문화원과 재매결연

송파문화원은 지난해 12월 6일 송파문화원 2층 강의실에서 부여문화원과 재매결연식을 가졌다.

영등포문화원

제1회 영등포문화원 문화교실 회원 작품전시회

▷일시 : 12월 11~16일

▷장소 : 영등포구민회관대강당

부산광역시

부산강서문화원

대가야 유적지 답사

부산강서문화원은 지난 11월 24일 대가야 유적지가 있는 경북 고령읍을 답사했다. 고령문화원 박기원 사무국장의 안내로 답사를 실시한 36명의 부산강서문화원 문화가족들은 2000년 9월에 준공된 고분박물관 및 일본천황시조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고천원(高天原)공원을 답사했다.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부산강서문화원은 10월 27일부

문화원소식

터 12월 7일까지 6회에 걸쳐 삼광초등학교 등 6개교 4백여명을 대상으로 부산강서지역 문화유적지를 답사했다.

금정문화원

송년미술작품전

금정문화원은 12월 14~20일 송년미술작품전을 열었다.

대구광역시

대구북구문화원

북구문화원 임원 신년 교례회 및 이사회

▷일시 : 2001년 1월 11일 (목) 12:30
▷장소 : 북구문화예술회관 쉼리레스토랑

인천광역시

강화문화원

제3회 주부교실서예전

▷일시 : 11월 14~18일
▷장소 : 강화문화원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원

광주청소년문화예술단 제2회 정기공연

▷일시 : 12월 10일
▷장소 : 남도예술회관 대공연장
▷종목 : 국악 · 성악 · 기악 · 무용 · 탭스 · 연극(구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회

사무실 이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24-5번지 대덕문예회관(대덕문화원내)
전화 042)637-7517

FAX 042)621-7517

대덕문화원

주소이전

이전주소 : (우)306-8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24-5 (대덕문예회관내). 전화번호 이전과 동일.

경기도

과천문화원

제6회 과천향토작가 작품전람회

과천문화원은 2000년도 과천향토작가 작품전람회를 유관단체장 및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과천지역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었다. 서예 · 한국화를 선보인 이번 전시회에서 더욱 돋보인 것은 찬조 출품한 원예 · 꽃예술 작품으로 전람회장을 빛냈으며 복합 전시회의 이채로움은 물론 시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람인원은 1700여명.



제3회 과천향토사료전

▷일시 : 12월 4일
▷장소 : 과천시민회관 전시실

▷과천문화원은 관내 기관장을 비롯 유관단체장 및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과천향토사료전을 개최했다. 사진으로 보는 평생의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의 의례는 물론 죽은 후에까지의 의례를 테마별로 사진으로 묶어 전시했다. 이번 전시회는 관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직접 인솔하기도 하는 등 2500여명이 참관해 이례적인 성황을 이루었다.



양주문화원

'양주에서 본 조선시대 사회' 학술발표회

양주문화원은 양주군과 공동으로 11월 25일 양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양주에서 본 조선시대 사회사 - 임격정 · 김병연(김삿갓)의 출생과 관련하여' 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강원도

동해문화원

김은미 간사 임명

동해문화원은 11월 13일자로 김은미 前동해시청 기획실 직원을 간사로 임명했다.

삼척문화원

제8기 문화학교 본원부설 수지침 자원봉사단 시민건강 진료봉사

▷일시 : 11월 1일

▷장소 : 신기면 복지관

삼척로타리 클럽 초청 특강

▷일시 : 11월 21일

▷장소 : 삼척로타리 클럽

▷강사 : 김원우 원장

▷주제 : 삼척의 역사와 문화 및 문화원 사업

▷대상 : 로타리 클럽 회원 부부 80명

삼척지역 문화연구회

▷일시 : 11월 25일

▷장소 : 본원 회의실

▷발표자 : 김도현 연구위원

▷주제 : 역대지리지의 삼척지역 사찰관련 유물 · 유적 검토

제8기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일시 : 12월 1~3일

▷장소 : 삼척문화예술회관 제 1·2·3전시실

제8기 문화학교 수강생 무대공연 및 수료식

▷일시 : 12월 2일

▷장소 : 삼척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정선문화원

문화학교 큰너울품물회 정기공연

정선문화원은 지난 11월 9일 정선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문화학교 큰너울 품물회의 네 번째 정기공연을 가졌다.

어린이 인형극 순회공연

정선문화원은 지난 11월 13~14

일 이틀동안 폐광지인 고한초등학교, 사북초등학교, 북평초등학교에서 어린이 700명을 대상으로 "나쁜 말버릇" · "빨간 모자" 등 2편이 인형극을 공연했다. 서울인형극회가 공연한 이날 인형극은 초등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충청남도

천안문화원

새천년 천안미술 조명전

▷일시 : 12월 12~17일

▷장소 : 천안문화원 전시실

청양문화원

전입주민 내고장 문화알리기

청양문화원은 지난 11월 29일 정원영군수를 비롯 지역 각급 기관, 단체장 및 전입주민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전입주민 내고장 문화알리기 행사를 열었다.

청양문화원 ▽



전라북도

전주문화원

제18회 노령봉상상 시상

- ▷일시 : 12월 20일
- ▷장소 : 전주 코아호텔 2층
- ▷내용 : 손순례 (63) · 문선자 (39) · 권오채 (43)씨등 수상

익산문화원

제4회 송년발표회 및 문화생발표회 민속국악대공연

- ▷일시 : 11월 28일
- ▷장소 : 시민문화회관

경상북도

김천문화원

독서 생활화 강연회 개최

김천문화원은 지난 11월 13일 문성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향토시인 권숙월씨를 초청해 독서 생활화를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임직원 단합대회

김천문화원은 지난 11월 19일 경남 거제도에서 문화원 임직원 단합대회를 가졌다.

3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개최

김천문화원은 지난 11월 25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3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문예 창작반 이미숙씨를 비롯한 173명이 수료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발표회를 찾아 성황을 이뤘다.



문경문화원

2000년 송년 푸른음악회

- ▷일시 : 12월 8일
- ▷장소 : 문경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



제27회 문경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일시 : 11월 28일
- ▷장소 : 문경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

문경문화원 원사이전에 따른 개원식

- ▷일시 : 12월 12일 11시
- ▷장소 : 본 문화원사(경북 문경시 점촌동 234번지 소재) 대회의실

2001년 신년 교례회

- ▷일시 : 2001년 1월 2일 11시
- ▷장소 : 문경시청 대회의실

경산문화원

일본 조요시와의 어린이 그림 교류전

- ▷일시 : 12월 13일~15일(3일간)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내용 : 경산시와 일본 조요시는 매년 11~12월경에 어린이들의 그림작품을 공모·선별, 전시하는 어린이 그림 교류전을 개최해 문화교류와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올해는 일본 조요시의 국제 교류협회(회장 마구치 요시오)로부터 총48점을 송부받아 문화원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2000 동계 청소년 문화교실

- ▷일시 : 12월 20일~23일
- ▷장소 : 문화원 강당

경산문화이해를 위한 향토문화 강좌

- ▷일시 : 12월 19일, 1월 11일 18일 오전11시
- ▷장소 : 경산문화원 강당
- ▷내용 : 경산의 임당·조영지역에서 출토된 찬란한 압록문화(삼한시대)의 올바른 이해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향토문화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분산전시되고 있던 유물을 비롯 택지개발과정에서 새로이 발굴된 유물을 모아 국립대구박물관이 특별전을 개최하고 이를 정리해 '압록사람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의 도록을 발행했다. 문화원은

이 도록을 강의교재로 채택해 경산시민들에게 고장의 자랑스러운 압독문화유물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향토문화강좌를 경산시의 후원을 받아 개최하고 있다.

고령문화원

문화유적순례

▷일시 : 12월 5일

▷순례지 : 문경석탄박물관 · 문경새재(왕건촬영현장) · 충주탄금대

▷참석대상 : 문화원 이·감사, 부설단체(가야금, 합창단, 풍물단)회원, 원장, 사무국장, 간사

예천문화원

문화학교 제1기 수료식 및 주부백일장 시상식

▷일시 : 12월 6일

▷장소 : 예천군문화회관 회의실

경상남도

경상남도지회

경주문화유적탐방



경남지회는 지난 11월 21일 도내 문화원장 · 부원장 및 사무국장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 창원대 박동백 교수의 안내로 황룡사터 · 경주박물관 · 대왕암 · 분향사석탑 · 이견대 · 감은사터 등 경주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했다.

마산문화원

창녕군의 '신라 문화유적' 탐방(사진)

마산문화원은 지난 11월 17일 문화가족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녕 교동고분지(사적제80호) 창녕박물관 진흥왕척경비(국보33호) 술정리 동삼층석탑(국보 34호) 창녕석빙고(보물310호) 영산만년교(보물 564호) · 망우정 등 창녕군의 신라시대 문화유적지를 탐방했다.



진해문화원

진해문화학교 제1기 노인컴퓨터 강좌 개강

진해문화원은 지난 11월 13일 경남은행 진해지점 2층 회의실에서 문화원 이사 및 노인컴퓨터 수강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노인컴퓨터 강좌 개강식을 가졌다.

진해문화원 문화탐방

▷일시 : 11월 23일

▷장소 : 전남 순천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생뚝쥐베리 탄생 100주년 기념

「어린왕자」연극 공연

▷일시 : 11월 28일

▷장소 : 시민회관 대공연장

▷내용 : 진해문화원은 지난 11월 28일 진해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뚝쥐베리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어린왕자」를 3회에 걸쳐 공연했다.



통영문화원

도지정 문화재 지정 노력

통영문화원은 통영 전통연을 도지정 문화재(민속자료)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통영연연구가 및 애호가 13명이 모여 그동안 통영문화원이 취합해온 통영 전통연에 관한 회의자료를 최종 검토했다. 통영지방의 연구가에 의하면 통영 전통연의 역사는 40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문화원소식

며 300여년의 통제영시대의 12 공방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의 크기, 문양 등이 타 지역의 방패연 및 창작연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과학성과 예술성이 있어 이의 보존 계승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사천문화원

성황당 산성제

▷일시 : 11월 4일

▷장소 : 사천 성황당 산성

추계 문화유적지 탐방

▷일시 : 11월 2~3일

▷장소 : 외암리 민속마을 - 이충무공 묘소 - 온양 민속박물관 - 도고온천 (숙박) - 김정희 추사고택 - 예산 건축박물관 - 윤봉길사가 - 수덕사 - 홍주성 - 귀향

▷참석인원 : 원장 외 135명

김해문화원

문화학교수강생 작품교류

▷일시 : 12월 5~9일

▷장소 : 전남 장성문화원 전시실

▷내용 : 김해문화원은 장성문화원과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교류전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5~9일까지 장성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린 제9회 향토작품전에 사군자 묵화반 수강생 작품을 함께 전시했다.

문화학교수강생 합동발표회

▷일시 : 12월 11일 오후5시

▷장소 : 문화원 전시실, 공연장

겨울방학국악특강 개강

▷일시 : 12월 26일

▷장소 : 김해문화원 강의실

▷내용 : 김해문화원 문화학교에

서는 겨울방학을 맞아해 청소년들에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악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단소반과 사물놀이반으로 나누어 한달 동안 실시된다.

의령문화원

한시(漢詩)작법강좌실시

의령문화원은 한시동인단체인 의춘시사(시사장 곽동엽)와 공동으로 12월 16일 군민문화회관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동안 초보자를 위한 한시작법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제주도

제주문화원

2000년도 문화학교 수료생 작품전

▷일시 : 11월 27~30일(4일간)

▷장소 :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전시내용 : 꽃꽂이, 서예, 한국화, 서양화 (총 100여점)

2000년도 문화학교 수료생 사진작품전

▷일시 : 12월 16~21일(6일간)

▷장소 :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전시내용 : 사진 (40여점)



실록속의 천안인(上)



천안문화원은 향토문화자원 발굴과 보존 전승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에 향토문화자료 16번째로 조선왕조실록속의 천안인을 찾아서 그 행적을 단행본으로 만들어 현대인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고 있다. 천안은 선비의 고장으로 충효열사를 많이 배출한 곳이다. 4×6배판 430면 (천안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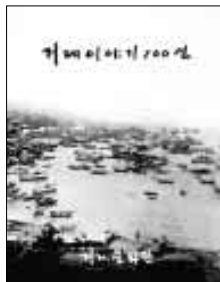
郷土研究 (第11輯)

천안향토사연구소가 발간한 향토사연구집이다. 민병달천안문화원장의 「직산 위례성 설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비롯 8편의 향토사연구논문이 실려 있다. 신국판 304면 (천안문화원)



거제이야기 100선

거제지역의 근·현대 이야기 100가지가 실려 있다. 책에 소개된 사건들은 거제인의 삶과 생활방식, 터전을 바꾸어 놓은 일제 강점기 이야기 등이 실려있다. 거제의 근·현대 산 역사이다. 신국판 450면 (거제문화원)



高敞文化 12집

고창문화원이 발간한 정기간행물이다. 문화원소식, 세시풍속, 우리고장 바로알기, 향토사료논단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있다. 기획물로 다룬 「문헌에 나타난 단군성조」가 주목을 끈다. 신국판 286면 (고창문화원)

광양지역 지정문화재편람

중흥산성 삼층석탑등 국가지정문화재 3종을 비롯해 광양 성황리 3층석탑 등 지방지정문화재 7종, 그리고 중흥산성쌍사자석등등 타지에 보존된 국가지정국보급 문화재를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광양문화원)

삼별초논저집

삼별초에 관한 글을 모은 논문집이다. 강화문화원과 강화 삼별초연구회가 공동으로 펴냈다. 사진류 2, 개설서류 5, 논문류 9, 기타 10편의 삼별초에 관한 글이 실려있다. 4×6배판 466면 (강화삼별초연구회·강화문화원)



이달의 정기간행물

- 문화도시 문화복지 92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민속소식 제63호 (국립민속박물관)
- 레일로드 12월호 (철도방송)
- 흥성문화 가을 (흥성문화원)
- 蘆嶺 2000. 겨울호 (전주문화원)
- 班郷 公州文化消息 통권217호 (공주문화원)
- 늘푸른 수원 제155호 (수원시)
- 당진문화 제16호 (당진문화원)
- 청사초롱 제170호 (한국관광공사)
- 유성소식 제99호 (유성구)
- 스산의 숨결 제205호 (서산문화원)
- 동구문화원 2000. 가을호 (대전동구문화원)
- 오산문화 제19호 (오산문화원)

작가와 함께

이각규 한국지역문화 이벤트 연구소장

16년간 현장 경험 담은 '토종' 이벤트 전문서 펴내

축제로 '소문난' 이각규씨를 만난건 지난해 6월의 어느 여름 날이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장 이각규'라는 이름을 심심치않게 듣는 터라 '이사람'이란 꼭지의 인터뷰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 때 이씨는 전문가답게 머잖아 '21세기 지역이벤트 전략'이란 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 제목의 책이 지난해 11월 경에 나왔다. 신간소개치고는 한두달정도 늦은 셈이다. 다른 한편 머리속에 내내 등지를 틀고 있었다. 잘 팔리는 책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책이다. 일반인은 일반인 나름대로 전문가는 전문가 나름대로 읽을 수 있다.

아직까지도 분명한 개념을 찾지 못한 지역 이벤트에 관해 이론과 경험을 적당히 섞어가며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유용하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에선 지역이벤트의 필요성 및 실시 배경, 추진 전략, 역할, 제3섹터 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 '지역이벤트 동향'을 살피고 있다. 또 2부에서는 현재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 박람회와 지역 축제, 향후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될 컨벤션 이벤트의 기획 구상에서 실시 평가까지를 구체적으로 다룬 '지역이벤트 실무'를, 3부에서는 국내 이벤트와 '이벤트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다양한 지역 이벤트 성공 및 실패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 이벤트 미래를

전망 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이벤트 사례'를 각각 담고 있다. 부록으로는 '일본 정부의 이벤트 관련 지원 정책'을 싣고 있다.

일본의 이벤트 서적을 번역해 놓은 책만

있는 국내 서점가로 볼 때도 이같은 '토종' 서적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6년간 필드에서 다양한 이벤트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 '21세기 지역 이벤트 전략' 쓴 이각규씨

바로 그 여름날 취재를 마치고 난 후의 일이다. 기자는 인터뷰 기사에 "축제를 만드는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었다.

얼마후 다시 그를 만나 술 한잔 기울이며 "기사중 혹시 잘못된 게 없느냐?"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마이더스라는 제목이..."하고 말끝을 흐렸다.

'타이틀을 강하게 뽑는다는 게 결국 실체에 비해 부풀려 보인다는 얘기구나!' 기자는 땀가가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었다.

그가 기획하거나 진행한 축제들을 떠올려 보았다. 인천도자기 축제(95~99), 금산인삼제(96~98), 강화고인돌축제(98), 내장산단풍축제(98), 전주종이축제(99), 2000 충주세계무술축제(2000), 제5회 장성백양단풍축제(2000) 등등. 권커니 받커니 술맛이 좋아졌다.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21세기 지역 이벤트 전략



문화의 시대 새천년을 개막한 2000년이 저물고 2001년이 밝았다. 새천년을 맞은 흥분과 부푼 희망에 들떠 있던 경진년은 용의 승천을 이루지 못한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새해는 신사년 뱀의 해다. 그러나 21세기를 맞는 우리 입장은 용두사미를 바라지 않는다. 2001년은 전국문화원들이 주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의 해이다. 영리한 뱀을 본떠 211개 지방문화원이 지혜를 모아 우리 「지역문화」를 세계적인 특색있는 문화로 만들어야 하겠다.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를 한국의 르네상스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새해 소망이다. 신사년 원단의 새해설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문화원 가족들은 각오를 다져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올 신년호에는 「지역문화의 해」에 대한 문화원장들의 바람을 실었다. 성공적 지역문화의 해가 되길 바라면서..... (柳)

1월엔 신정과 구정이 같이 끼어 있군요. 새해 인사하다보면 한달이 훌쩍 지나갈듯 합니다. 지난 2000년을 우리가 보냈던 것 처럼 말이죠.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화살과도 같고 물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 처럼 '하늘을 우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습니다. 회사에 올 때도 집으로 갈 때도 소풍가는 초등학생 마냥 즐겁게 살 수는 없을까요? 구르는 돌보고도 웃을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서울역 지하도나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들도 가족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란한 음악과 춤이 흘러나오는 TV도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촛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눈이 내리거나 꽃이 피거나 햇빛이 비치거나 낙엽이 지거나 그리고 다시 눈이 내리거나 변함없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이고 싶습니다. 그런 한 해이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敗)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相关资料 또는 정보를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안내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곳곳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

전국 문화원 현황

우리문화원은 전국에 2백11개 있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 • 종로문화원 • 중구문화원 • 용산문화원 • 성동문화원 • 광진문화원 • 동대문문화원 • 중랑문화원 • 성북문화원 • 강북문화원 • 도봉문화원 • 노원문화원 • 은평문화원 • 마포문화원 • 양천문화원 • 강서문화원 • 동작문화원 • 관악문화원 • 강남문화원 • 송파문화원 • 강동문화원 • 금천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부산광역시 • 동래문화원 • 북구낙동문화원 • 부산강서문화원 • 연제문화원 • 기장문화원 • 사상문화원 • 금정문화원 • 대구광역시 • 중구문화원 • 달성문화원 • 남구대덕문화원 • 대구북구문화원 • 대구서구문화원 • 달서구문화원 • 대구동구팔공문화원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 • 부평문화원 • 강화문화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광주서구문화원 • 광주남구문화원 • 광주북구문화원 • 광산문화원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중구문화원 • 서구문화원 • 유성문화원 • 대덕문화원 • 울산광역시 • 울산문화원 • 울주문화원 • 울산중구문화원 • 경기도 • 경기도지회 • 수원문화원 • 성남문화원 • 의정부문화원 • 안양문화원 • 부천문화원 • 광명문화원 • 평택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 안산문화원 • 고양문화원 • 과천문화원

• 구리문화원 • 남양주문화원 • 오산문화원 • 시흥문화원 • 군포문화원 • 하남문화원 • 용인문화원 • 파주문화원 • 이천문화원 • 안성문화원 • 김포문화원 • 양주문화원 • 여주문화원 • 화성문화원 • 광주문화원 • 연천문화원 • 포천문화원 • 가평문화원 • 양평문화원 • 의왕문화원 • 강원도 • 강원도지회 • 춘천문화원 • 원주문화원 • 강릉문화원 • 동해문화원 • 태백문화원 • 속초문화원 • 삼척문화원 • 홍천문화원 • 횡성문화원 • 영월문화원 • 평창문화원 • 정선문화원 • 철원문화원 • 화천문화원 • 양구문화원 • 인제문화원 • 고성군문화원 • 양양문화원 •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 • 청주문화원 • 충주문화원 • 제천문화원 • 청원문화원 • 보은문화원 • 옥천문화원 • 영동문화원 • 진천문화원 • 괴산문화원 • 음성문화원 • 단양문화원 • 증평문화원 •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 • 천안문화원 • 공주문화원 • 서산문화원 • 논산문화원 • 금산문화원 • 부여문화원 • 서천문화원 • 청양문화원 • 홍성문화원 • 예산문화원 • 태안문화원 • 당진문화원 • 대천문화원 • 온양문화원 • 조치원문화원 • 아우내문화원 • 성환문화원 •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 • 전주문화원 • 군산문화원 • 익산문화원 • 정읍문화원 • 남원문화원 • 김제문화원 • 완주문화원 • 진

안문화원 • 무주문화원 • 장수문화원 • 임실문화원 • 순창문화원 • 고창문화원 • 부안문화원 •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 • 목포문화원 • 여수시문화원 • 순천문화원 • 나주문화원 • 광양문화원 • 담양문화원 • 곡성문화원 • 구례문화원 • 고흥문화원 • 보성문화원 • 화순문화원 • 장흥문화원 • 강진문화원 • 해남문화원 • 영암문화원 • 무안문화원 • 함평문화원 • 영광문화원 • 장성문화원 • 완도문화원 • 진도문화원 • 신안문화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 • 포항문화원 • 경주문화원 • 김천문화원 • 안동문화원 • 구미문화원 • 영주문화원 • 영천문화원 • 상주문화원 • 문경문화원 • 경산문화원 • 군위문화원 • 의성문화원 • 청송문화원 • 영양문화원 • 영덕문화원 • 청도문화원 • 고령문화원 • 성주문화원 • 칠곡문화원 • 예천문화원 • 봉화문화원 • 울진문화원 • 울릉문화원 •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 • 창원문화원 • 마산문화원 • 진주문화원 • 진해문화원 • 통영문화원 • 사천문화원 • 김해문화원 • 밀양문화원 • 거제문화원 • 양산문화원 • 의령문화원 • 함안문화원 • 창녕문화원 • 고성문화원 • 남해문화원 • 하동문화원 • 산청문화원 • 함양문화원 • 거창문화원 • 함천문화원 • 제주도 • 제주도지회 • 제주문화원 • 서귀포문화원